

사) 한보협, 8·15 해방 68주년기념 및 세법 세미나 열어

사)한보협 대표회장 이범성 목사는 8월 13일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1번지 여전도회관 2층 루이지홀에서 8·15 광복 68주년을 기념하고 세법, 본질원형회복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1부 민정식 목사(사무총장, 세법위원회 회장)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어 이창희 목사의 기도, 박용희 목사가 출10:23절을 봉독했다. 특별기도에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신한철 목사, 본협의회 발전을 위하여 송태우 목사, WCC 반대 대책을 위하여 송준길 목사 등이 기도한 후 사금열 목사(본협의회 법인이사)는 “해방”이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지왕철 목사(상임고문), 민정식 목사(사무총장, 세법위원회 회장)가 강사로 나서 세법, 본질원형회복이란 주제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었다. 한편 박동호 목사(상임회장)는 이날 기도문에서 “우리 보수교단협의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이 있기까지 지켜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의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여

가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의 삶과 생각도 변하여 가고 있고, 주님의 몸 된 교회에도 이러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가 이와 같은 세대에서 법을 등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저희 한국 기독교 보수교단을 이 땅에 세우시고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도움을 주고자 각종 (세법)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우신 종에게 성령의 감동 감화로서 듣는 이들에게 크나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듣는 이들에게는 역사하

시어 그 어느 한 가지도 헛되지 않게 되게 하옵소서.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보수교단협의회를 세우시고 보수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리고 저희 보수교단 협의회와 산하 모든 총회와 지 교회들을 더욱 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주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몸 버려 돌아가시는 데까지 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 아 멘 --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언론회 8·15 광복 68주년을 맞아

우리는 일제에 의한 식민지의 비극적 상황에서 해방 68주년을 맞이하면서 역사적 의미와 그 책무를 새롭게 해야 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는 지난 동아시아 컵 축구대회장 플래카드 논쟁으로 시작된 말이 아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침략한 악한 역사를 잊지 말라’며 일본을 향한 외침으로 끝나서도 안 된다. 일본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훈수 보다는, 단재 신채호의 강토는 빼앗겼어도 정신이 살아있으면 강토를 다시 찾을 수 있다는 명언을 가슴에 깊이 되새겨야 한다.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김승동 목사

일제에게 국권을 강탈당하고 자유와 인권유린, 강토를 빼앗긴 치욕과 슬픔의 36년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역사를 잊으면 그 슬픈 역사는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다. 8·15 광복절을 맞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일제에 의한 비극적인 일들이다. 우리나라 역사상 국권을 빼앗긴 유일한 역사였으며, 필설로 다할 수 없는 비극적 일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육신의 상처, 정신적 고통을 지니고 슬픔을 견디고 있는 이들이 많다. 아직도 일제의 식민지 비극은 끝나지 않은 것이다.

일제에 의한 잔혹한 행위, 세계역사에 유일무이한 악행으로 인하여 아직도 눈물을 감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어머니들, 일본군이 성노예로 짓밟은 인권과 육체를 유린당한 분들의 가장 작은 요구인 진정한 사과를 다 시한번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일 본정부에 요구한다.

현재 일본은 지난날 면피용의 사과도 뒤집으려고 한다. 침략주의의 상징인 목일승천기를 휘날리고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데 정부까지 나서고 있음은 우리가 두렵게 직시해야 할 위험한 일들이다. 3·1

독립선언서의 내용처럼 우리 스스로를 재적질하여 다시는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 될 수 없는 세계평화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힘을 기르고 국론을 하나로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피 흘리고 목숨까지 바친 선진들의 희생이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었던 것처럼 선진들의 피는 조국해방과 번영된 조국의 초석이 된 것이다. 이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역사교육의 강화를 요구한다. 셋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일제 압제하에 친일부역자를 외에는 어느 것 하나 온전한 일은 없었다. 일제는 기독교를 식민지 지배에 최대 걸림돌로 여겨서 신사참배 강제로 민족정신을 말살하고, 교회를 파괴하려 했으나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내놓고 저항하여 기독교 신앙을 지켰다. 그로 인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제를 패망시켜 해방을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8·15 해방 68주년을 맞이했으나 아직도 남,북의 분단으로 완전한 해방은 아니다. 남,북이 통일을 이루어야 완전한 해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 지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우

리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 광복 68주년을 맞이하면서 가슴 아픈 것은 아직도 북녘 땅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다.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 가두고, 학대하며, 생명까지 빼앗는 악행이 일상처럼 자행되는 슬픈 현실이 개선되어야 한다.

북한에는 조선그리스도 연맹도 있고, 봉수교회, 칠골교회도 있다. 조그런과 한국기독교협의회는 8·15 공동기도문도 발표했다. 그러나 남한의 내노라고 하는 많은 목사들이 거금을 들고 방문하고, 병원도 지어주고, 최첨단 과학기술대학교도 세워 주면서도, 북한 당국에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기독교인들을 석방하고,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당당함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제라도 거저 돌지만 말고, 당당하게 정치범 수용소의 기독교인들을 석방하고,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북한의 비참한 인권현실을 개선하고 남북이 평화로 통일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진정한 8·15 해방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남현교회 인도네시아 선교사 파송예배

김진우 박은원 선교사 “인도네시아 서부자바 짜란장” 파송

예장합동 활동노회 남현교회(담임 이춘복 목사)는 8월 11일 오후 4시 본당에서 김진우 박은원 선교사를 “인도네시아 서부자바 짜란장” 지역으로 보내는 파송예배를 드렸다. 이춘복 담임목사 인도로 보냄을 받은 선교사,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 모두는 다 선교사라는 책임 있는 주제로 1부 예배가 드려지고 남현교회선교위원장 박석환 장로가 기도를, 남현하늘나라소리단의 찬양에 이어 담임 이춘복 목사는 성경 롬1:1-2절을 봉독했으며, 박무용 목사(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는 “복음을 위하여”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김진우 박은원 선교사

여하고, 총회선교회가 파송교회인 남현교회(이춘복 담임목사)에게 파송패 증정과 이사위촉장 등을 전달했다. 아울러 담임 이춘복 목사는 남현교회가 김진우 박은원 선교사를 인도네시아에 파송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성도들에게 감사했다. 또한 총회 GMS본부 이사장을 비롯 파송예배에 순서를 맡은 이들에게 감사로 인사했다.

아울러 이 목사는 본교회가 처음 선교정책을 정해놓고 현재 30여 개국에 선교사를 돕는 협력선교하고 있으며 마침내 2007년도에 김상식 선교사를 남현교회의 제1호로 파송하게 되었으며, 이번에 제2호로 김진우 박은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다면 소개했다. 또한 하나님께서 2020 Vision을 남현교회에 주셨다며 본격적으로 100교회 보조, 지교회 10개교회 설립, 단독선교사 10가정 파송을 전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며 남현교회의 포부를 밝혔다.



소진우 목사 2012년-2013년 성회일정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목사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교회 : 02)3391-9676(대)

- 라이프빌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성TV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CTS 칼럼리스트
- 예복교회 담임

2012년 1월
2-4 천성교회(김영목사)
6 오산리금식기도원(조희연원장)
9-11 온사랑교회(최태식목사)
13 한일선교회(이영금원장)
16-18 신성교회(정대호)
19 성산수양관(윤호균원장)
22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23-26 광은기도원(김한배원장)
29 예제교회(류종모목사)
30-1/2 한돌교회(송우종목사)

2012년 2월
6-9 김립산기도원(이우원원장)
12 예수사랑교회(신동식목사)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13-15 신갈장로교회(이광수목사)
16 성산수양관(윤호균목사)
19-22 평강교회(박성주목사)
27-29 중평명강교회(고영철목사)

2012년 3월
축복대심방
5-7 수원교회(강성우 목사)
18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22 김립산기도원(임예재원장)

2012년 4월
2-4 한예성교회(강대중목사)
5-6 성소기도원(박정연원장)
9-10 정기교회
15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16-18 동탄제자교회(이석원목사)
23-25 주사랑교회(김주환목사)
27 김립산기도원(임예재원장)

2012년 5월
31-3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7-9 우리교회(홍은교회)(이명천목사)
13-16 성신교회(송양도 목사)
21-24 광음교회(김동기목사)

2012년 6월
3-6 주천안교회(윤병구목사)
7 김립산기도원(임예재원장)
10 천보산기도원(유택진목사)
12-14 베데스다교회(허영태목사)
17-30 2주연속심대성회(예복교회)

2012년 7월
2-5 사명자영성원(송요섭원장)
8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9-10 신학성여름제미나
23-26 천문교회(최정숙원장)

2012년 8월
5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8-10 한일선교회(이영금원장)
11-16 광은기도원(김한배원장)
20-23 김립산기도원(유택진원장)
27-30 성산수양관(윤호균원장)

2012년 9월
2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3-5 주우리교회(이형구목사)
10-12 새만교회(김병식목사)
17-20 교단총회
24-26 일신제일교회(최창대목사)
30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2012년 10월
8-10 신일교회(정병수목사)
12 한일선교회(이영금원장)
15-16 정기교회
19 성소기도원(박정연원장)
22-25 진리교회(송대구목사)
26 김립산기도원(임예재원장)
28 천보산기도원(유택진목사)
29-31 김단지역기독교연합성회(회장-한신현목사)

2012년 11월
3 향기교회(김홍수목사)
5-9 사교지방문
11-14 동서교회(박경재목사)
19-21 경성교회(이광준목사)
25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26-28 예수비전교회(이승달목사)

2012년 12월
2-7 부흥성회(예복교회)
10-15 필리핀선교회(강신조 목사)
17-19 예원교회(한규식목사)
23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21 김립산기도원(임예재 원장)

2013년 1월
1-3 과천예복교회(노영수 목사)
7-9 장영성결교회(강석진 목사)
10 김립산기도원(김성광 원장)
14-16 김신교회(김동환 목사)
20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1-23 한중은교회(기갑상 목사)
28-30 청남교회(조성민 목사)

2013년 2월
1 한일선교회(이영금 원장)
5 침사령교회(강신조 목사)
4-7 김립산기도원(이국란 원장)
11-14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1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8-20 광정성결교회(남봉우 목사)
21 김립산기도원(임예재원장)
22 임마누엘기도원(이수영 원장)
25-28 비전교회(조정현 목사)

2013년 3월
축복대심방
1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3년 4월
1-3 광음교회(강성우 목사)
8-11 성산수양관(윤호균 원장)
14 한일선교회(이영금 원장)
15-16 정기교회
22-2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9-1 주우리교회(이규형 목사)

2013년 5월
3 C채널 TV예배
6-8 참사랑교회(강신조 목사)
11 주왕교회(김홍수 목사)
13-15 신일교회(정병수 목사)
17 김립산기도원(임예재 원장)
19-6월 1 2주 연속 특별 십자가대회

2013년 6월
3-5 한교연합성회(집회)
10-13 온사랑교회(최태식 목사)
14 오산리금식기도원(국해원 원장)
17-19 니동예교회(최종국 목사)
20-21 국내미교회(송영 목사)
24-27 진주기도원(김신홍 원장)

2013년 7월
1-3 은혜교회(유권재 목사)
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8-10 성신교회(신승종 목사)
15-19 선교지선교회(이국란 목사)
21-27 예복교회 특별기도성회(담임 소진우 목사)
28 세계명교회(차영아 목사)
29-31 한기전교인연합성회

2013년 8월
2 한일선교회(이영금 원장)
3 김립산금식기도원(임예재 원장)
4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5-8 금산임마누엘수양관(이수영 원장)
12-15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19-22 김립산기도원(이국란 원장)
26-29 천문교회(최정숙 원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왕성교회, 십자수기도원 2013 하계산상집회 성황

“하나가 되어”란 주제로 말씀과 기도로 달구어진 양평 십자수기도원

왕성교회, 십자수기도원은 경기도 양평에 수려한 자연 속에 자리 잡고 있어 도심 속에서 지친 현대인들에게 평안한 자연의 숨겨진 교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영적 충전의 장이기도 하다.

서울 왕성교회(김자연 원로목사, 김요나 담임목사)는 제36차 2013 전교인 여름 산상 수양회'를 개최하고 “하나가 되어”(엡 4:13)라는 주제로 지난 달 말 3일 동안 하계산상집회를 열어 매시간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로 불을 붙였다.

주 강사 김자연 원로목사와 김요나 담임목사는 예배소서 강해를 통해 참석한 성도들은 심오한 말씀에 영적충전을 받고 쉬는 시간에는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는 등 피서가 따로 없었다는 즐거운 표정들이었다. 기도원 앞을 끼고 흐르는 계곡은 마치 십자가의 형태를 띠고 있어 그 이름을 십자수기도원이라고 지었으며, 본 기도원의 특징은 역시 그런 그대로 보존된 계곡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십자수기도원의 시설을 둘러보면 다양한 크기의 많은 숙소들로 별장



과도 같다하겠다. 아울러 이곳은 공휴일이나 주말을 이용한 가족단위 수련회에서부터 교회 소그룹 모임 1천명 이상 예배드릴 수 있는 큰 본당까지 규모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번 산상집회에 수양회 위원회 조직은 지도 홍종길 목사, 부지도 황은성

목사, 위원장 최명철 장로, 부위원장 박정호 장로, 총무 강성택 집사, 서기 위대환 집사, 회계 최관규 집사 등이며, 집회는 새벽, 낮, 저녁, 하루 3번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며,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과 직장의 문제 등을 제목으로 매 시간 기도로 뜨거웠다.

하지만 위원장 최00 장로를 비롯 일 부직원들의 행동은 덕스럽지 못했다. 지금까지 당회장으로 모셔왔던 김자연 목사를 실권 없는 목사 운운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최 장로의 태도... 한국교회가 인정하는 왕성교회요 김자연 목사인데...

또한 김자연 목사가 설교를 마치고 나오자 기자가 인사를 하고 있을 때, 몇몇 남자 직원들이 달려들어 악수하는 손을 뿌리치고 더 이상 접근을 금했다. 그 무례한 행동에 사과한바도 없었다. 각 언론사 기자들은 1년에 한번쯤은 십자수기도원에서 산상집회를 인도하는 김자연 목사(원로)를 만나 뵙는다. 덕망 높은 김 목사와의 인터뷰를 마치면 시원하게 흐르는 계곡 물에 발도 담그고 연일 취재에 지친 몸과 마음을 잠깐의 피로감을 달래는 피서가 된다. 누구든지 한번쯤은 쉬고 싶은 계곡이며 경관이 빼어나다.

하지만 왕성교회의 최00 장로의 덕스럽지 못한 언어와 직원들의 무례한 행동은 모욕감마저 든다. 최 장로와 직원들은 사과하고 앞으로 각 언론사 기자를 대할 때 포용력을 가지고 취재에 협조하는 후덕한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국정원 댓글 담당 진재선 검사가 중복세력?



김진태 의원

춘천 출신 공안검 출신 김진태 의원의 제보에 의하면 “국정원 댓글 담당 진재선 검사가 중복세력”으로 밝혀졌다. 그 검사는 최근까지 “사회진보연대”라는 단체 활동을 해 온 것으로 밝히고, 그 단체가 발행한 월간지에는 “그렇소 나는 공산주의자요”라는 제목의 노골적인 공산주의 찬양의 글도 기록되어 있다.

“주한미군 철수” “국가 보안법 폐지”는 그들의 기본 정책이다.

제 판단에는 PD계열의 반국가단체(이적단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검사가 원세훈 사건을 처리한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다. 법무부장관은 오늘 국정조사에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사건을 맡겼다’고 하면서도 당장 교체는 하지 않을 것이다. 교체할 경우 원세훈 사건의 진실이 송두리채 흔들리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모든 의문은

자연스럽게 풀리게 돼있다.

북한의 사이버부대가 최소 12000명이며 해킹부대만 3000명으로 남한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수천 개의 거짓과 선동 댓글이 난무한 이 당대에 검찰은 이를 외면하고 국정원으로서 마땅히 막아야 할 중복대응 내용의 댓글 73개 단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할 것이다. “국정원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기관”이라고 하니 중복 대응행위는 얼마나 미웠겠는가? 이게 바로 야당의 시작이고 좌파검사의 시작이다.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기독교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피종진목사 이사장: 장기환목사 사장: 소진우목사 발행인: 장기남목사

전국 23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574-10 대운빌라 1층 제202호
▶E-mail : jtntv@hanmail.net
▶전화 : (032) 672-3031(팩스겸용) ▶직통 : (070) 8230-0034
▶H.P : (010) 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차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0,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670-110405-00108 / 농협 455030-56-005509

논평

이명범 목사 신앙고백

예일교회와 예일신학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한 이명범 목사(레마성서연구원 원장)는 1992년에 예장통합측으로부터 ‘극단적 신비주의 형태의 이단’으로 규정됐다.

통합측이 이명범을 이단이라고 지정한 내용은 첫째, 삼위일체가 김기동씨와 같은 양태론이다. 둘째, 창조론에서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려고 인간을 창조했다 한다. 셋째, 사람은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있다는 삼분설을 바탕으로 혼에만 지, 정, 의의 인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김기동 씨의 사상이다.

넷째, 성경은 우리 영에 필요한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성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여 성경을 반이성적으로 그리고 신비주의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이명범은 베뢰아의 김기동 사상을 그대로 옮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김기동이 이단임으로 이명범도 이단이다라는 것이 통합측 교단의 평가이다.

그런데 과연 이명범 목사의 성경해석이나 신학적 이해가 통합측이 말하는 그대로인가. 최근 발표된 이명범 목사의 신앙고백문은 정통 보편적 교회의 그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삼위일체 이해나 기록론, 성경론 등 어디에도 통합측이 지정한 그런 이단성은 보이지 않는다. 한 사람의 신앙은 그의 신앙고백에 담겨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사는 것이다. 즉 ‘말은 저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고 의심한다면, 역사적 기독교가 고백해온 보편적 신앙고백도 의심받을 수 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이전에 ‘표현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 잡아 보편적 교회와 함께 가면 된다. ‘너는 한 번 말을 잘못했으므로 영원히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이명범 목사의 신학사상을 검증한 국제크리스천학술원의 위원들은 “이명범목사와 레마성서연구원과 이 기관에서 운영하는 예일교회와 예일신학대학원대학교는 이단이 아니다”면서, “한국교회와 교계는 이명범 목사의 이단 정죄를 해제함으로 이명범 목사가 남은 삶을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와 세계선교에 전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고 교계를 향해 천거하고 있다.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전성서수련원)



원로목사 이철재 감독



담임목사 이정민

생명의 양식	주요 영적사주 영적계산	지정영역	지정영역	지정영역
예배 안 내	오 일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주일	오전 11:00	본당 (2층)	
찬양 예배	주일	오전 3:00	이천 수련원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30	기도성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30	찬양 (2층)	
성년대학부 예배	토요일	오전 9:00	지하 성전	
스페인어 예배	주일	오전 6:30	지하 성전	
새벽 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5:00	지하 성전	
수요 기도회	수요일	오전 7:30	지하 성전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전 9:00	지하 성전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전 2:00	기도성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이전 031-634-3590)
부설 : 새생명어린이집 [02-464-3107]

대한예수교 장로회 향기로운교회

HYANGGIROUN CHURCH



표어 이 전의 더 큰 영광을 보리라(막2:7)

담임목사 정일량 유성은

섬기는 분들

전임전도사 : 이귀선(사문) 전도사 : 헬시바
선교사 : 전승주, 손호재(태국치마미)
장로 : 최문호, 유봉철
인수집사 : 손경현, 배하성, 정대봉
성가대장 : 정대봉
성가대지휘 : 이용경
피아노 : 배민지 신디 : 김인영
드럼 : 유혜란 김호정

예배시간 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09:30
2부 찬양예배 오후 1:30 청년1,2팀예배 오전 09:30
사방 애한 교제외시간 주일학교예배 오전 09:30
수요기도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목
영락원예배 오전 9:00 1일월사 예배 오전 05:00
목요치유예배 오후 7:30 17기 제자교육 월화금요일

홈페이지 http://hgion.onmam.com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502-1 향기로운빌딩 9층
☎ 032)814-7720, 팩스 032)714-3131, 010)4274-3330

사설

국정원의 진실된 개혁은

우리나라의 국정원장은 정권의 신임을 받는 최고의 정보기관의 수장으로 막강한 힘을 갖지만 정치권력과 가까운 수밖에 없는 특성상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좋지 않은 말로를 겪는 경우를 본다.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로부터 시작한다면 김중필 전 총리는 중앙정보부의 창설자로 초대 부장을 지냈지만 전두환 정권을 통하여 재산이 몰수되고 한 때 정치활동이 금지됐다.

다음으로는 1963년부터 6년여 동안 중정부장으로 재직하던 김형욱 전 부장은 개헌의 1등 공신인 자신을 전격 해임하고 1973년 3월 유정희 국회의원 명단에서도 제외되자 그해 4월 미국으로 망명했다. 그는 1977년 6월 뉴욕타임스 기자회견 및 미 하원 프레저 청문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강력 비난하고 이어 회고록 출간을 추진하는데 1979년 10월1일 단신으로 파리에 도착 10월7일 파리 시내 카지노에서 목격된 후 실종됐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은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시해하고 자신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안기부 시절에 심복 장세동 안기부장은 최측근으로 막강한 권력을 누렸지만 12·12사태와 5공 비리에 연루돼 3차례나 구속됐다.

김영삼 정부 때 권영해 안기부장은 김대중 정권 출범 후 총풍과 북풍 등 각종 공안사건 조작 및 대선자금 불법 모금사건 등에 연루돼 구속됐으며, 그는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성격측 속에 있던 문구용 칼을 꺼내 배를 그어서 자해하는 소동을 벌였는데 병원에 옮겨진 그가 변호인에게 “폐장이 죽는 것 외에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참여정부 시절의 김승규, 김만복 전 원장도 피의사실 공표·정보 유출 혐의 등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국정원 대선개입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건설업자로부터 역대 급품을 수수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는가 하면, 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해 국정원에 고강도 개혁을 주문했다. “과거 정권부터 국정원은 많은 논쟁의 대상이 돼 왔다”라며 “국정원은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그러한 지시는 애매모호하다. 그 한계가 어디까지이냐? 하는 것이다.

국정원의 국가안보 수호에 대한 기여는 결코 그 어느 기관보다 크다 할 것이다. 과거 정권의 안보기관으로서의 행보에 대한 반성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역대 중앙정보부 즉 지금의 국정원장들의 수난사를 펼쳐 보리라

박정희 전 대통령 때에 창설된 중요 정보기관으로 이제는 정권을 초월한 국가 정보기관으로 개혁되어야 할 때이다.

그래서 그 어느 정부도 함부로 손 댈 수 없는 국가의 안보를 위해 일 할 수 있도록 보장 되어진 기관, 때문에 그 수장은 그 분야의 전문인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기왕이면 동 기관에서 뼈가 굵은 인재가 좋을 것이다.

국가 정보원의 국정 조사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로서는 정치인 종북 사상자들 가운데는 고정 간첩과 같이 나라의 전복을 꿈꾸는 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들 중에 국감요원이 있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이 국회에서 결정되었는데 헌법재판관을 통하여 무효화 시키는 현상과 같은 국가의 수처스러운 일이 발생할 것이다. 법을 만들고 고치는 국회가 결정할 것을 헌재가 뒤집을 수 있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그리고 보면 삼권분립의 의미는 사라지고 삼권의 최고 결정권자가 바로 헌재가 된 꼴이 되었다.

그렇듯 국가의 정보 최고 기관을 국감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이제는 성숙한 국가의 정치를 하는 선진국형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금번 새 정권에서는 국가의 꼭 필요한 특수 기관으로 정권을 초월한 국정원으로 개혁하여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 루아침에 세워지고 내려앉은 일이 없어야 지금과 같은 국정원장의 감옥형? 또는 고난을 막을 수 있으며 국가를 위한 안정된 정보기관으로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워 나가게 될 것이다.

기적의 치유집회



강사 박수영 목사

- 영복샘전인치유센터원장
- 세계주영광부흥사회의장과 강사단장
- 경북대학교병원교회원목회원
- 지저스타임즈 대구지사장
- 중부노회 노회장
- 영복샘교회 담임목사

집회 고침받은 내용

- ☆ 최병욱 : 심장병으로 숨막히고 췌아찌는 고통에서 고침받음
- ☆ 류정호 : 만성변비로 가이거대학병원에서 퇴원 장애준비중 고침
- ☆ 김소영 : 류마티스관절 평생지병 정회중 선포 기도로 고침받음
- ☆ 남영수 : 재생불량성빈혈 정대병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가 고침
- ☆ 김영자 :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가 고침 받음
- ☆ 박수영 :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건증
- ☆ 강복희 :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가 집회중 고침받음
- ☆ 김복자 : 고혈압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예배 오후 7: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치유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9:00 새벽 기도회 오전 5:00
청소년부예배 오후 2:00 중보기도모임 매일 8:00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대구광역시 동구 송리로 100-18(신현동)
☎ 053-752-8238 010-8537-8291



8월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방송 사장
- 라이프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성TV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1.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말씀 : 사도행전 21장 24-26절 찬송 : 374장
 믿음은 사랑 안에서 표현됩니다. 우리에게는 연약한 자들도 섞여 있으므로 그들을 기억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미 주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라고 결의하고 편지했습니다. (15:20) 유대인의 기준이 아니라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삶을 이해하고 시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들을 위해 율법의 결례를 행하도록 한 것은 모두를 배려한 행동이었습니다. 영적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 사명자

말씀 : 사도행전 21장 27-30절 찬송 : 321장
 마침내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바울을 이단자이며 불경한 인물로 몰아세운 것입니다. 바울이 붙잡힌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성령이 알려 주셨던 일이었습니다. (20:23) 바울은 자신이 붙잡혀 죽으리라는 것도 알고도 예루살렘에 왔고, 죽음을 각오하고 성전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는 목숨마저 주님을 위해 내놓은 사명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각오한 사명자인가요?

3. 전도자

말씀 : 사도행전 21장 31-36절 찬송 : 521장
 하나님은 바울이 그 자리에서 생명을 마치게 두지 않으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군대에 끌려가게 되었지만, 사실상 그를 죽이려하는 군중으로부터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도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4. 간증자

말씀 : 사도행전 21장 37-40절 찬송 : 321장
 바울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할 기회만을 찾았습니다. 바울은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층대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한 유대인들 앞에서 히브리 말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예수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 자신을 변화시킨 예수님을 끝까지 간증하고자 했습니다.

5. 이전의 삶

말씀 : 사도행전 22장 1-4절 찬송 : 183장
 바울을 혈통적 유대인으로 길러기아 다스출생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자랐으며 가말리엘의 제자로 교육받았습니다. 그는 전통 유대인의 엄한 율법교육을 받으면서 율법에 대해 열심을 갖고 그것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예수 믿는 남녀를 결박해 옥에 넘기고 자신을 핍박자로 자처하며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은 하나님과 원수 된 삶이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열심을 내어 살았지만, 그것은 진리와의 상관없는 삶이었습니다.

6. 주님을 만난

말씀 : 사도행전 22장 5-9절 찬송 : 182장
 다메섹에 이르러 정오쯤 되었을 때, 하늘에서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고, 그가 땅에 엎드려 지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울만을 위한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7. 변화된 삶

말씀 : 사도행전 22장 10-16절 찬송 : 214장
 바울은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만났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울에게 할 일을 말했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은 신실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8. 주를 위해 사는 바울

말씀 : 사도행전 22장 17-20절 찬송 : 95장
 바울은 이제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았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지시한 대로 행동하는 사명자였습니다. 사명을 위해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가치 있는 삶을 삽니다. 나의 삶은 온전히 하

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9. 배척받은 바울

말씀 : 사도행전 22장 21-25절 찬송 : 91장
 바울의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며 바울을 살려두지 말자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천부장에 붙들려 영문 안으로 끌려가 채찍질과 심문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는 군중에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대신, 사람들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핍박받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능히 이기게 할 것입니다.

10. 로마 시민 바울

말씀 : 사도행전 22장 26-30절 찬송 : 88장
 백부장이 채찍질하려고 하자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혔습니다. 로마 시민을 죄도 확정하지 않고 어떻게 채찍질할 수 있는냐는 것입니다. 당시는 로마가 지중해를 지배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라는 신분은 특권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지혜롭게 활용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졌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11. 말씀을 따라

말씀 : 사도행전 23장 1-5절 찬송 : 315장
 바울에게 있어서 최종 권위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공회에서 자신을 변호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은 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때 곁에 선 사람들이 그가 대제사장임을 알려주었고 바울은 미처 알지 못했더라 '너의 백성의 권위를 방비할 말라'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는다 해도 말씀을 최종 권위로 여기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12. 나뉘리 무리

말씀 : 사도행전 23장 6-7절 찬송 : 314장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둘 사이에서 다름이 생겼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바리새인은 모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아 진리 아래 살지 않으면,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오용하게 됩니다. 자기 입장을 지탱해 주는 근거로 말씀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리와 거리가 먼 자들이기에 우리는 그들을 가까이해서는 안됩니다.

13.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 : 사도행전 23장 8-11절 찬송 : 366장
 천부장은 더 큰 사고가 일어날까봐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주님은 바

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지배 아래 사는 바울은 이때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의해 인도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14. 죽이려는 음모

말씀 : 사도행전 23장 12-15절 찬송 : 388장

바울을 증오한 유대인들은 담을 지어 맹세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4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은 음모를 꾸며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목숨과 재화를 위협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때 가운데 있는 연약한 양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도전과 희망

구주화가 '엘리스래퍼'라는 영국 여인이었다. 그는 1965년 짧은 다리와 양팔이 없는 해표지증(phocomelia)을 안고 태어나 생후 6주 만에 버려졌다. 한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유년기를 지나 청소년으로 자랐다. 그는 17세에 입으로 하는 미술 공부를 시작하여 1994년 학사 학위를 받고, 22세에 결혼했으나 남편의 폭행과 학대에 시달려 2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

암울한 유년기와 불운한 결혼생활을 겪어야 했던 '엘리스래퍼'였지만 그녀는 불굴의 의지로 절망을 딛고 일어섰다. 그는 세계적인 구주화가 대회에서 세계여성 성취상을 수상하고, 대영제국의 국민훈장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만류에도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여느 어머니와 다를 바 없이 아이를 키웠다. 긴 막대기 끝에 항결을 달아 비누를 묻혀서 아이를 씻겼고 입에 스푼을 물고 아이에게 이유식을 주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웃음을 잃지

않고 깨끗하고 당당하게 아이를 키웠다. 그녀는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말한다. "장애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마음의 장애를 넘어 새로운 세계에 도전한다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인생에 도전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난이 없다면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고 무로한 삶이 돼버릴 것이다"라고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녀는 인생의 승리자이다. 엘리스래퍼는 앞으로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아니 생애가 끝날 때까지 고난과 역경의 가시밭길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다고 말한다. 바울은 지금 여러분의 생활이 고난이냐고 묻는다. 고난을 즐거움으로 알고 승리하는 엘리스래퍼처럼 지금 이겨냈는가?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희망이 온다고 믿는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13 아멘!

칼럼

회개운동이 절실할 때

1907년 평양 대부흥회가 길선주 목사의 인도로 진행되고 있었다.

장대현 교회에 모인 1500여명은 길 목사의 설교에도 변화가 없었다. 기도도 타지 못했고 성령의 은사도 임하지 않았다. 그때 길 목사는 은혜의 단절은 자신의 탓이라 깨닫고 외치기 시작했다. "저는 아간과 같은 놈이다. 저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받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제 친구 한 사람이 입증하면서 제게 부탁하기를 '나는 이제 죽지만 내 재산을 잘 처리해주게. 내 아내는 무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꼭 부탁하네'라며 세상을 떠났습네다. 저는 그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1백원을 잘라 먹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속였습네다. 저는 내일 아침 일찍 그 돈을 그 부인에게 돌려주겠습네다" 길목사의 우렁찬 공개 자복이 터지자 회중석에선 통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저 유명한 성령강림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성장을 가로막고 민족공동체를 분열, 파괴시키는 것도 따지고 보면 책임을 떠넘기기 때문이다. "네 탓이다. 네가 책임져라"라는 파행이 계속되는 한 회생의 처방은 없다. 그러나 "나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라는 회개운동이 일어난다면 제3의 부흥운동은 활성화처럼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은총 기도원



원장 주은총 목사

매월 첫째주(월-목) 정기성회

(지저스타임즈 부흥사회 주관)

매월 셋째주(월-목) 정기성회

(세계주영광 부흥사회 주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 2동 486-27(2층)
☎ : 010-6327-0191, 070-7518-0195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라!"

심령부흥 성회



대표회장 콰영민 목사

- 예정(백석) 인천노회 소속
- 등불교회 담임
- 예수능력치유센터 원장
- 예복부흥사관학교 대표(인천)부흥사연구원장
- 지저스타임즈부흥사협의회 사무국장
-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
- 지저스타임즈 인천지사장/본사 사무국장

대한예수교장로회 등불교회 · 예수능력치유센터
"부흥회 및 부흥사 연구 요청"
http://kmission.onmam.com / cafe.daum.net/kmission
☎ 032)891-0651, 010-2080-0651

에녹부흥 사관학교



콰영민 목사

등불교회 담임
예수능력치유센터 원장
예정(백석) 인천노회 소속
에녹부흥사관학교 대표(연구원장)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 5대 대표회장
지저스타임즈 부흥사회 사무국장
지저스타임즈 인천지사장/본사 사무국장



김명욱 목사



김해자 목사



윤상중 목사



김성연 목사



김성연 목사



김명욱 목사



콰영민 목사

http://kiea.onmam.com

교재제공 및 학비 없음

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장소 : 충만교회 · 충회신학연구원.
주소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1동 8-7 2층.
문의 : (대표)010-2080-0651, (사무국장)010-2008-5072

충회신학연구원 신학생 수시 모집
(문의:학장 김해자 목사 010-5517-7223)

사도영성 신학원 학생모집

이 시대의 사명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사도영성 신학원은 수시로 접수 중...

2학기 개강 : 9월 9일 오전 10시부터

- 학장 : 홍요한 박사
- 교무과장 : 양미상 목사, 교학처장 : 홍성의 목사
- 선교회장 : 선년규 장로
- 선교회 총무 : 김동현 간사 : 이현숙



학장 홍요한 박사

1. 학교비전 / 교과목 소개
2. 교수소개
 학장: 홍요한 목사 (안양신학대학원 / 미국에글랜드대학원 목회학 박사 / 호주시드니 알파크로시스템, 미국 University of Puritan 한국학)
 교 수
 지왕철 목사 (미국시애틀에유니버시티 목회학 박사/한기보협 상임교문)
 김광봉 목사(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 미국CLARMONT대학원목회학 박사)
 이효은 목사 (한양대학 / 춘신대학원 석사. 박사)
 박경애 교수 (안양신학대학원/미국하와이 인터네셔널대학원 기독교상담학박사)
 허 식 목사 (안양신학대학원 석사 / 한국경목총회 장)
 이갑표 목사 (한영신학대학원 / 대신대학원 석사)
 임애숙 목사 (안양신학대학원/전라수호국기도회 대표 / 예수재단 대표)
 임애숙 목사 (한국동화교역자총회 중경총회장)
 박용숙 목사 (연세대학원 석사 / ezab.org 이갑원장 / 주성동교회담임)
 양미상 목사 (고려대학원 / 본 교 교무과장)
 정기남 목사 (지저스타임즈 & JTNTV방송 대표이사)
 홍성의 목사 ((미)순천한나드사역연구원 학생처장)

사도들의 영성 특징

1. 사도들은 미래를 산 사람들이다.
2. 사도들은 마귀와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다.
3. 사도들은 실천하는 지성인이다.
4. 사도들은 자기를 이긴 사람들이다.
5.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완전에 가까운 사람들이다.

사도영성신학원을 개원하면서 평신도나 신학도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영성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첫 사명을 살려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데 있다.

주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15-3외 1필지 에스텍스더빌-타워 제11층 1108호
• Email: church-7@hanmail.net • 학장: 010) 7585-1955 02) 2625-0982

www.inamhyun.org

대한예수교장로회

남현교회

2013년 동여 "넘쳐나는 교회"
전도로 주원하는 백성이 넘쳐나는 교회
이도로 주원하는 백성이 넘쳐나는 교회
온전으로 성숙한 믿음이 넘쳐나는 교회



담임목사 이은복

비전 2020

1. 열정적 전도
2. 전인적 양육
3. 사명의 공동체
4. 감격의 예배
5. 기쁨의 봉사
6. 즐거운 교제
7. 능력의 선교

예배시간 안내			
주일 낮 예배	1부	주일 오전 9시 30분	대예배(찬송)
	2부	주일 오전 10시 30분	대예배(찬송)
	3부	주일 오전 11시 30분	대예배(찬송)
주요예배(대예배)	1월 1주	주일 오전 9시 30분	대예배(찬송)
	2월 1주	주일 오전 9시 30분	대예배(찬송)
	3월 1주	주일 오전 9시 30분	대예배(찬송)
주요예배(대예배)	4월 1주	주일 오전 9시 30분	대예배(찬송)
	5월 1주	주일 오전 9시 30분	대예배(찬송)
	6월 1주	주일 오전 9시 30분	대예배(찬송)
	7월 1주	주일 오전 9시 30분	대예배(찬송)
	8월 1주	주일 오전 9시 30분	대예배(찬송)
	9월 1주	주일 오전 9시 30분	대예배(찬송)
	10월 1주	주일 오전 9시 30분	대예배(찬송)
	11월 1주	주일 오전 9시 30분	대예배(찬송)
	12월 1주	주일 오전 9시 30분	대예배(찬송)

주말학교(대예배) (오전 11시 20분)

영아부(2세 이하)	1층 영아부실
유치부(3-7세)	1층 유치부실
1초등부	2층 1초등부실
2초등부	2층 2초등부실
3초등부	2층 3초등부실
4초등부	2층 4초등부실
5초등부	2층 5초등부실
6초등부	2층 6초등부실
7초등부	2층 7초등부실
8초등부	2층 8초등부실
9초등부	2층 9초등부실
10초등부	2층 10초등부실
11초등부	2층 11초등부실
12초등부	2층 12초등부실
13초등부	2층 13초등부실
14초등부	2층 14초등부실
15초등부	2층 15초등부실
16초등부	2층 16초등부실
17초등부	2층 17초등부실
18초등부	2층 18초등부실
19초등부	2층 19초등부실
20초등부	2층 20초등부실
21초등부	2층 21초등부실
22초등부	2층 22초등부실
23초등부	2층 23초등부실
24초등부	2층 24초등부실
25초등부	2층 25초등부실
26초등부	2층 26초등부실
27초등부	2층 27초등부실
28초등부	2층 28초등부실
29초등부	2층 29초등부실
30초등부	2층 30초등부실
31초등부	2층 31초등부실
32초등부	2층 32초등부실
33초등부	2층 33초등부실
34초등부	2층 34초등부실
35초등부	2층 35초등부실
36초등부	2층 36초등부실
37초등부	2층 37초등부실
38초등부	2층 38초등부실
39초등부	2층 39초등부실
40초등부	2층 40초등부실
41초등부	2층 41초등부실
42초등부	2층 42초등부실
43초등부	2층 43초등부실
44초등부	2층 44초등부실
45초등부	2층 45초등부실
46초등부	2층 46초등부실
47초등부	2층 47초등부실
48초등부	2층 48초등부실
49초등부	2층 49초등부실
50초등부	2층 50초등부실
51초등부	2층 51초등부실
52초등부	2층 52초등부실
53초등부	2층 53초등부실
54초등부	2층 54초등부실
55초등부	2층 55초등부실
56초등부	2층 56초등부실
57초등부	2층 57초등부실
58초등부	2층 58초등부실
59초등부	2층 59초등부실
60초등부	2층 60초등부실
61초등부	2층 61초등부실
62초등부	2층 62초등부실
63초등부	2층 63초등부실
64초등부	2층 64초등부실
65초등부	2층 65초등부실
66초등부	2층 66초등부실
67초등부	2층 67초등부실
68초등부	2층 68초등부실
69초등부	2층 69초등부실
70초등부	2층 70초등부실
71초등부	2층 71초등부실
72초등부	2층 72초등부실
73초등부	2층 73초등부실
74초등부	2층 74초등부실
75초등부	2층 75초등부실
76초등부	2층 76초등부실
77초등부	2층 77초등부실
78초등부	2층 78초등부실
79초등부	2층 79초등부실
80초등부	2층 80초등부실
81초등부	2층 81초등부실
82초등부	2층 82초등부실
83초등부	2층 83초등부실
84초등부	2층 84초등부실
85초등부	2층 85초등부실
86초등부	2층 86초등부실
87초등부	2층 87초등부실
88초등부	2층 88초등부실
89초등부	2층 89초등부실
90초등부	2층 90초등부실
91초등부	2층 91초등부실
92초등부	2층 92초등부실
93초등부	2층 93초등부실
94초등부	2층 94초등부실
95초등부	2층 95초등부실</

대한민국에 대한 예의가 먼저

민주당 1948~1979 대한민국 역사의 절반을 부정하는 反 역사세력



김영삼 이후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소위 민주화세력의 특징은 대한민국 건국역사 부정, 김구와 남북합작에 대한 미련, 김일성 6.25남침 전쟁범죄에 관대, 닉슨독트린으로 인한 국가존망의 위기대처 차원의 유신(維新)에 대한 적대감으로 무장하고 '위수김통 族' 및 주사파에 대한 관용 습성이 골수에 뒀다는 것이다.

이런 풍조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겠지만 아권 종북세력들은 남침전범 천안함폭침 테러집단 김정연에

게까지 "예를 갖추라(4.8 국외외통 위 민주당 심재권)"고 정부에 대고 호통을 치면서도 정작 대한민국에 대한 예의는커녕 건국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현직 대통령을 귀태(鬼胎)라 저주하고 있다.

그런 자들이 느닷없이 '넷글 3개 국정조사' 증인채택문제를 가지고 시청광장을 무단 점거, 천막을 치고 나 앉아 촛불폭도와 결탁 대선 불복 폭동을 선동하는 한편, 박 대통령과 1:1 영수(領袖)회담을 제안하는 양면전술로 나오는데 대하여

청와대가 여야 당대표 및 원내대표를 포함 5자회담을 하자고 제안하자 "야당대표 모독, 무시, 깔보기" 거칠게 반발 발작을 하고 있다.

그런 반면에 민주당의 北에 대한 작사량은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 시 김대중과 평민당 소속 김원기 이우정 이부영 장영달 남궁진 임재정 의원이 김일성 조문단 파견을 주장하고 나서고 광주 지역 전년대와 조선대에 분향소를 치러 김일성 죽음에 애도와 예의를 표한 데서부터 극적으로 표출

됐다.

근자에 와서도 200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죽자 박지원과 문재인 등 민주당 패거리들이 조문과 애도를 표하겠다고 설쳐대고 김대중 부인 이희호와 정몽헌 부인 현정은이 평양을 방문 장례식에 참석 김정은에 조문, 애도와 예의를 표하는 것으로 한 단계 발전 된 종북행태를 보여 왔다.

그런 한편, 2012년 12월 대선기간 중 야당후보로 선출 된 문재인과 야권단일후보 경합을 벌였던 안철수가 현충원을 방문 김대중 묘소만 참배하고 건국대통령 이승만과 근대화 대통령 박정희 묘소 참배를 거부하고 봉하마을로 달려감으로서 대한민국정체성과 정통성을 원천적으로 부정, 싸늘하게 외면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 뿐만 아니라 대선패배 후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문화상도 5.4절 담대회에서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김한길도 김대중 노무현 묘소만 참배,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묘소 참배를 거부 1948.8.15~1979.10.26 대한민국역사에 대한 반감(反感)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건국과 근대화 역사를 지워버리려는 의도를 재차 드러냈다.

이는 민주당이 대한민국 건국자체를 부정한다는 뜻이며, 김대중 노무현 10년을 제외한 대한민국 역사를 인정치 않겠다는 것이다. 남침전범수괴 국제테러범 김일성과 김정일의 죽음을 애통하고 김정은에게 예의를 갖추기에만 급급한 민주당이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한

정당인지조차 의심이 가는 대목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대한민국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합법정당이라면, 촛불 폭동에 나설게 아니라 국가정체성과 정통성을 소중히 여겨 국가계속성유지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해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합법정당으로서 대우를 받고 민주당대표가 존중을 받으려면, 먼저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과 예의부터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다.

민주당의 해묵은 종북 운동권적 행태를 엿볼 수 있는 사례로 2006년 8월 강제집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요충 시끄러운 '넷글3개' 국정조사 증인문제 따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전시작전권문제와 관련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을 때 여당 원내대표로서 김한길이 했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김한길 당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과거에 대통령이 재왕적 총재를 겸하고 있던 시절이라면 모르지만 지금은 단일일 뿐"이라며 "그래도 대통령인데 야당 대표(의 회답이 아니라) 면담 신청을 했어야 한다."고 퇴짜를 놓은 발언이 구지화문(口之禍門)이란 고사처럼 부메랑이 되어 회자되고 있다.

아무리 6.15와 10.4에 걸신이 들리고 종북 반역성향이 뻣속까지 배었다고 할지라도 김한길 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안 보인단 말인가?

논설위원 백승목 저문 hugepine@hanmail.net

통일교 문선명 사후 활동 동향 공개세미나!

통대협 사무총장 이영선 목사 초청

2013년 8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40분까지 예장합동총회 문선명집단(통일교)대책위 위원회 주최로 통일교 문선명 사후 활동동향 공개세미나를 총회회관 2층 여전사 증인문제 따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전시작전권문제와 관련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을 때 여당 원내대표로서 김한길이 했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1강의는 '통일교원리 신학적 고찰' 제목으로 총신대학교 윤종훈 교수(20분), 2강의는 '통일교 미래동향 공개' 제목으로 한기총 통일교대책위원 강준호 목사(20분), 3강의는 '통일교 실체공개'라는 제목으로 한국기독교통일교대책협의회 사무총장 이영선목사(40분)가 강의를 하였다.

이 날 강사로 초청된 통대협 사무총장 이영선 목사는 통일교에서 31년동안 생활한 내용과 문선명집단의 실체를 파악포인트로 사진과 자료를 통하여 생생하게 통일교의 실체를 영상으로 알려주어 기독교 목사와 성도들에게 문선명 집단의 실체를 낱알이 폭로하여 통일교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었다.

통일교 대책을 위하여 앞으로 세미나를 통해 통일교 집단에 대한 비리를 폭로하고 경각심을 갖을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결의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한국기독교통일교대책협의회 사무총장 이영선 목사는 "한국 기독교 수많은 부흥 집회와 각 교단 세미나에 통일교 규탄시간을 지속적으로 갖는 운동을 해야 한다"면서 "통대협 사무총장 이영선 목사를 부흥집회와 각 교단 세미나에 강의 및 간증에 초청하여 통일교에 대한 규탄시간을 가져서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교 대책을 위하여 앞으로 세미나를 통해 통일교 집단에 대한 비리를 폭로하고 경각심을 갖을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결의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한국기독교통일교대책협의회 사무총장 이영선 목사는 "한국 기독교 수많은 부흥 집회와 각 교단 세미나에 통일교 규탄시간을 지속적으로 갖는 운동을 해야 한다"면서 "통대협 사무총장 이영선 목사를 부흥집회와 각 교단 세미나에 강의 및 간증에 초청하여 통일교에 대한 규탄시간을 가져서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대협 사무총장 이영선 목사는 이어서 "한국교회는 통일교의 포교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통일교 기관기업체 및 제품을 이용하지 말아야 하며 기독교 목사와 성도들이 문선명집단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세워 뿌리 뽑는 운동을 할 때 통일교(문선명집단)의 회생자도 사라지고 껍질이 될 것"이라며 "한국 기독교 목사와 성도들이 문선명집단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세워 뿌리 뽑는 운동을 하여 통일교 척결에 공동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원금금 계좌번호: 국민은행 044202-04-078236 예금주:이영선 (통일교대책협의회)

이영선목사 간증초청 연락전화: TEL) 02-744-2422/H·P 018-214-7720

성서가 2,551개 언어로 번역되다



(1)아르헨티나의 토바어 신약 번역. (2)케냐의 칼렌진어 버전 성경 개정. (3)키리위나어 성경을 받고 있는 파푸아뉴기니 주민들. (4)성경을 받고 기뻐하는 케냐 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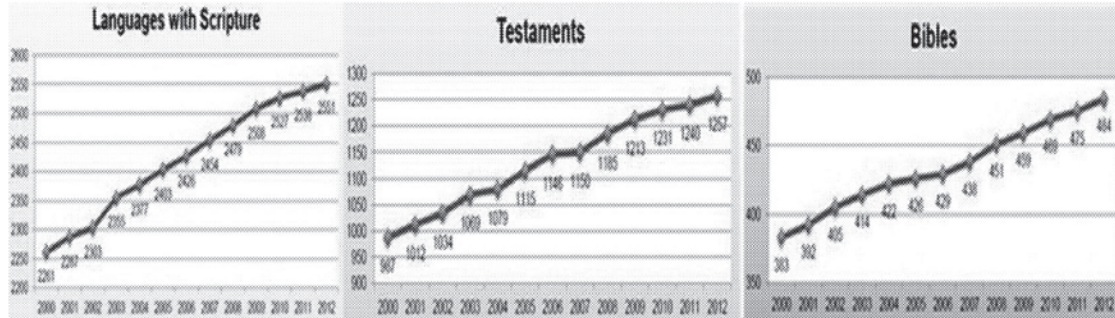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는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최소한 단편(쪽쪽음)이라도 번역된 언어의 수가 총 2,551개에 이르러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2011년 말까지 번역된 언어 수보다 13개의 언어가 더 늘어난 숫자이다.

지역별	성경	신약	단편	합계
아프리카	189	343	216	748
아시아/태평양	186	540	341	1,067
유럽	63	41	110	214
아메리카	45	333	141	519
기타	1	0	2	3
합계	484	1,257	810	2,551

2012년 성서 번역 현황을 살펴보면, 성경은 지난해보다 9개의 언어로 더 번역되어 484개, 신약은 17개의 언어로 더 번역되어 1,257개, 그리고 단편은 810개에 이른다. 단편만 번역된 언어의 수는 2011년에 비하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해당 언어로 신약전서 번역이 완성되면서 단편 목록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현재 전세계의 7,105개의 언어 중, 실제로 구약과 신약이 모두 번역된 언어는 495개에 불과하기에 여전히 성서가 본인의 언어로 번역되지 않아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고 성서 번역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2년 첫 번역 성경은, 파푸아 뉴기니의 키리위나(Kiririna)성경,



▲지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성경과 신약, 성서(성경, 신약, 단편 포함)가 번역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케냐의 키엠부-김베레(Kiembu-Kimbeere)성경, 대만의 하카(Hakka)성경,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데벨레(Ndebele) 성경, 남수단의 실룩(Shilluk)성경, 시에라레온의 크리오(Krio)성경, 아르헨티나의 토바-콤(Toba-Qom)성경 등이 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언어로 성서가 번역된 대륙은, 아시아 태

평양 지역으로, 1,067개의 언어,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아프리카 지역에 748개 언어, 아메리카 지역에 519개 언어, 유럽 지역에 214개 언어로 성서가 번역되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모국어로 된 성경이 없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이 지난 혹은 몇 세기가 지난 오래된 번역본을 이해하려고 애쓰면

서 새로운 번역이나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는 2015년 말까지 100개의 언어로 된 전체 성경 번역을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현재, 350개의 번역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2013년 현재까지 4개의 성경이 출판되었고, 1개의 성경이 출판 중이며 18개의 성경이 출판 준비 중에 있다.



담임 엄신형 목사
(직전총회장)

중흥교회

주일예배안내

오전 7시 1부, 11시 2부, 오후 2시, 5시

134-884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30-2
전화 : 02)476-7131



담임 박완근 목사
(신분방송 운영이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예배안내

주일오전: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30
주일오후: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6:00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전화 : 041-854-3676 H.P 018-320-1507

2013년 표어 :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요 1:14절)



담임 서명범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공덕교회

담임 : 서명범 목사(본지 운영이사)
사무장 : 송두현, 조길수, 박성현
안수집사 : 강정구
권사 : 전순자, 김경애, 김은자, 진규자
<예배안내>
주일예배 오전 11시 오후 2시
삼일밤 오후 8시 금요일기도 저녁 9시

주소 : (314-060) 충남 공주시 이길 6-1 (공주시 봉황동 295번지)
교회 및 팩스 ☎041)853-9966 e-mail:lov153@naver.com
홈페이지 http://lov153.cafe24.com

주성청각장애인교회



담임 우솔수 목사

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오후 8시
수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새벽 5시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트리치움(A) 319동 1803호 http://ezob.org
☎ 02)414-1191 H.P 011)775-5154 010-4611-3221



담임 안혜숙 목사
청각장애인지방연합 대표

서울방주농아교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316 2층
문의:010)4611-3221



담임 김안식 목사

예배안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 가는 교회"

주일(부예배) 오전 9:30
주일(주예배) 오전 11:00
주일(전예배) 오후 2:00
수요일 새벽 5:00 (토요일 제외)
새벽기도회
이런이부예배
주일 오전 9:30
주일 오후 2:00
주일 저녁 7:00
(토) 저녁 9:00
(일) 저녁 9:00
(화) 오전 9:00
(목) 오후 7:00

(360-170)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446-9번지
TEL 043) 217-0191, 070-8666-0691



담임 허식 목사
(현경총 총회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과천영락교회

예배안내

오전 11시 1부, 오후 2시 2부

426-182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535-5 센스빌딩 4층
☎ 031)416-8290



담임 오상열 목사
(본지상임이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승리교회

표어 :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55-1
전화 : 041-564-7004, 041-551-3553

제10차 WCC부산총회를 철회하라는 공개질의서

한국 준비위원회 대표회장 김삼환 목사 귀하

공개질의서 : 제10차 WCC 부산 총회 한국준비위원회가 WCC를 대한민국 부산에 유치, 개최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적인 보수교회들이 그 동안 WCC의 태동에서부터 제10차 총회를 앞둔 지금까지 걸은 발자취를 검토한 결과 WCC는 종교다원주의, 인본주의, 혼합주의 등등의 비 성경적인 교회단체라는 실재를 여러 차례 드러낸바 있으나, 제네바 WCC본부에서는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인 반면에 WCC 부산총회 한국준비위원회에는 도리어 성경적인 교회단체로 WCC를 방송과 신문 등을 통해 광고까지 하면서 옹호, 변호하기에 본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보수교단협의회는 WCC 부산총회 한국준비위원회의 그 같은 행위를 무덤에 화질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김삼환 대표회장에게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 하는 바이다.

1. 초혼제에 관하여

WCC는 죽은 자의 혼령에 대한 초혼자라는 기독교 이단 역사에 찾아 볼 수도 없는 무당국권을 제7차 호주 캔버라 총회 석상에서 벌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WCC는 잘못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이나 입장표명이 없는 현실 상태에서 김삼환 목사는 이러한 비기독교적인 실체를 가진 WCC를 옹인

하면서 까지 국제대회라는 명목을 앞세워 그들의 총회를 부산에 유치 하고서는 국민의 세금과 하나님의 드러진 헌금으로 개최하는 행위가 타당한 것인지 성경에 근거하여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2. 종교혼합에 관하여

WCC는 제3차 때부터 9차 총회에 이르기까지 종교통합운동을 펼쳐 왔고, 특히 제7차 호주 캔버라 대회에서는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조로아스터교 등 15개 종파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모든 프로그램을 함께 했다. 이러한에 WCC가 내세운 명목은 교회가 배타적이지 말고 타 종교인들과의 대화, 교제, 평화, 공존, 일치였다.

이는 육신에 속한 인본주의 사상가들의 눈에는 옳게 보였지만, 교회는 종교가 아니며 죄인된 옛사람이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여 죽어 장사지안되 되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시작에서는, WCC의 타 종교인들과의 일치를 추구하는 그 같은 노선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를 타 종교에 혼합시켜 말살하려는 용납할 수 없는 혼합주의 노선이기때, 이러한 노선이 고후 6:14-18절에 비춰서 타당하지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3. 종교다원주의에 관하여

WCC는 예수님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자가 있어서 그들을 구원한다고 선언하였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베푸시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더라도 그들의 종교와 문화 전통에 따라서 진솔하게 살아 가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어떠한 제한을 둘 수 없으며,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라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아니라는 바아르 선언(Baar Statement)을 1991년 캔버라 총회 때에 소위 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이것은 WCC의 공식문서로 채택되어 지금도 WCC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WCC가 종교다원주의임을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종교다원주의 행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목 박혀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대속하신 죽으심을 헛된 것으로 만들고, 성경 말씀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갈1:6-9절에 비추보면 저주받을 행동이다. 이러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죄악이 지금까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옹인되는 차원을 넘어서 도리어 WCC 부산총회 한국준비위원회는 오히려 WCC를 옹호, 미화하기를 마치 이리를 양이라고 하듯 신문지



상과 여러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광고까지 하는 작금의 행동들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성경에 근거하여 밝혀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종교다원주의가 이단인지 아닌지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4. 인본주의 사상과의 연합에 관하여

지난 1월 13일에 4개항의 공동선언문에는 1.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합니다. 2. 우리는 공산주의, 인본주의, 동성연애 등 복음에 반하는 모든 사상을 반대합니다. 3. 우리는 개종전도 금지주의에 반대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행1:8)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대와 지역과 나라와 종교를 막론하고 복음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천명합니다. 4.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무오하며 신약과 행위의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표준을 천명합니다.라고 서명하였다.

위 내용은 그리스도인이려면 누구도 부정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명명백백한 성경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정교회 조성안 대주교, 배태진 총무,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김근삼 회장, 생명평화마당, 한국기독교자교수협의회는 WCC의 에큐메니칼 정신에 벗어난다고 하여 위 공동선언문을 쓰레기로 취급, 폐기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고 배격하는 행동이며 나아가 WCC가 목격하고 지향하는 인본주의 사상을 우위에 두고 세우는 무서운 죄악이 아닐 수 없다.

김삼환 목사는 이를 옹인하고 도리어 이들과 함께 어울려 WCC 총회를 부산에 개최하는 행동이 성경에 비춰서 합당하지 밝히고, 성경에 입각한 근본 교리조차도 쓰레기로 취급하여 배척하고 인본주의 사상을 우위에 두고 세우는 사람들이 이단적인지 아닌지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5. WCC 총회 개최 당위성

WCC부산총회 한국준비위원회에서는 WCC총회를 부산에 개최하는 당위성으로 박성원, 이형기 박사의 'WCC의 목적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를 성취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최후 기도의 핵심 목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 세상의 모든 인류와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WCC부산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성경을 왜곡, 날조하는 것으로서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 제자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이듯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달라는 기도이지, 이 세상의 모든 인류와 피조물이 다 하나님 안



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달라는 기도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WCC와 부산총회 한국준비위원회는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를 지향하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시켜 악용하는 행위로서 이는 사단적이라 할 것이다. 또한 김삼환 목사의 경우는 WCC부산총회 개최 당위성으로 남북통일을 언급하였고, 전 세계 134개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국을 찾는다. 노벨상 받은 분들도 여럿 오시고, 국가 원수급 지도자들도 오신다. 그 했다.

그리고 이번 총회에 로마 카톨릭에서도 정식으로 대표단을 보내는 등 전 세계 최고 팔통 보수, 진짜 보수들이 다 온다고 하였으며, 또한 대학총장 여러 사신을 신문광고로 실어 WCC총회를 부산에 개최하는 것을 정당화 하였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당위성으로 내세울 기준이나 표준이나 진리의 잣대가 결코 아닌 것이며, 될 수도 없는 근거이기에 김삼환 목사는 인본주의 생각에서가 아니라 진리의 기준 자체인 성경에 입각한 신본주의 입장에서 WCC총회 개최 당위성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6. WCC의 정치 관여 문제

남아공 인종차별 살육 당시에 WCC가 지원을 하였고, 이를 게릴라 지원이라 함에 WCC한국준비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6.25전쟁 당시 유엔에 군사파병을 요청하였다며 한국에 좋은 영향을 끼친 단체로 WCC를 신문과 방송에 광고 선전 하였다.

이를 두고 묻는 질문은 교회가 이념 사상논쟁으로 사람을 죽이는 전쟁에 관여하는 이 세상에 속한 정치집단인가? 하는 것이다. 교회는 세상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요15:19, 17:14,16, 빌3:20)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죄

를 사하시고 죽음심으로 죄의 값을 대속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내어 주신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주님의 소유된 사람들이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롬14:7-9)

이러한 교회는 또한 십자가의 도와 예수님을 증거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을 구원시키고, 주의 나라를 위하는 것이 교회의 사역이지만 WCC 같은 경우는 이러한에는 침묵한 채, 정치 사회 인권 등 이 세상 전 분야에 지금까지 관여 하여 왔기에, 하늘에 속한 주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라는 교회단체가 이 세상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사역인지, 성경에 근거하여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7. 김삼환 목사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으로 재직시에 WCC의 회원 NCCK의 홈페이지에 오, 하나님 부처님(종략)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종략)신령나는 살림의 곳판을 벌여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무에미타를 아멘, 이러한 기도문이 게재되었던 바 이것은 혼합주의 전형으로서 이단적 행위인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의 7가지 질의에 대하여 2013년 8월 22일까지 본회의회나 지면을 통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없을 시에는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한국교회에 이 사실을 공표하고 WCC부산총회가 무산 될 때까지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원장: 박순중 목사 (본지 상임이사)

(등급판정-1급-3급자 환영)

☎033)541-0687 / 010-7405-9191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를 누리



사랑.섬김.행복이 가득한

강릉 정동진산성그리스도의교회

SANSEONG CHURCH CHRIST

부설/장기 요양원 정동진 노원

예/배/시/간/안/내

☐ 주일 오전 10시30분
☐ 주일 오후 1시 1시30분 2시

☐ 국제 153부흥회의 대표회장
☐ 세계교회부흥회의 운영회장
☐ 천안총회신학선대원실천학교수
☐ 서울 칼로신학연구원 교수
☐ 지저스타임즈 상임이사

210-822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55-12
TEL:(033)655-0691,0692 / HP:010-6409-0091
E-mail:cnh1091@hanmail.net

한국기독교총회

2013년 예배 및 모인 시간 안내

구분	시 간
주일 모인 예배-1부	주일 오전 9:00
주일 모인 예배-2부	주일 오전 11:00
주일 모인 예배-3부	주일 오전 12:30
주일 모인 예배-4부	주일 오전 1:30
주일 모인 예배-5부	주일 오전 2:30
주일 모인 예배-6부	주일 오전 3:30
주일 모인 예배-7부	주일 오전 4:30
주일 모인 예배-8부	주일 오전 5:30
주일 모인 예배-9부	주일 오전 6:30
주일 모인 예배-10부	주일 오전 7:30
주일 모인 예배-11부	주일 오전 8:30
주일 모인 예배-12부	주일 오전 9:30
주일 모인 예배-13부	주일 오전 10:30
주일 모인 예배-14부	주일 오전 11:30
주일 모인 예배-15부	주일 오전 12:30
주일 모인 예배-16부	주일 오전 1:30
주일 모인 예배-17부	주일 오전 2:30
주일 모인 예배-18부	주일 오전 3:30
주일 모인 예배-19부	주일 오전 4:30
주일 모인 예배-20부	주일 오전 5:30
주일 모인 예배-21부	주일 오전 6:30
주일 모인 예배-22부	주일 오전 7:30
주일 모인 예배-23부	주일 오전 8:30
주일 모인 예배-24부	주일 오전 9:30
주일 모인 예배-25부	주일 오전 10:30
주일 모인 예배-26부	주일 오전 11:30
주일 모인 예배-27부	주일 오전 12:30
주일 모인 예배-28부	주일 오전 1:30
주일 모인 예배-29부	주일 오전 2:30
주일 모인 예배-30부	주일 오전 3:30
주일 모인 예배-31부	주일 오전 4:30
주일 모인 예배-32부	주일 오전 5:30
주일 모인 예배-33부	주일 오전 6:30
주일 모인 예배-34부	주일 오전 7:30
주일 모인 예배-35부	주일 오전 8:30
주일 모인 예배-36부	주일 오전 9:30
주일 모인 예배-37부	주일 오전 10:30
주일 모인 예배-38부	주일 오전 11:30
주일 모인 예배-39부	주일 오전 12:30
주일 모인 예배-40부	주일 오전 1:30
주일 모인 예배-41부	주일 오전 2:30
주일 모인 예배-42부	주일 오전 3:30
주일 모인 예배-43부	주일 오전 4:30
주일 모인 예배-44부	주일 오전 5:30
주일 모인 예배-45부	주일 오전 6:30
주일 모인 예배-46부	주일 오전 7:30
주일 모인 예배-47부	주일 오전 8:30
주일 모인 예배-48부	주일 오전 9:30
주일 모인 예배-49부	주일 오전 10:30
주일 모인 예배-50부	주일 오전 11:30
주일 모인 예배-51부	주일 오전 12:30
주일 모인 예배-52부	주일 오전 1:30
주일 모인 예배-53부	주일 오전 2:30
주일 모인 예배-54부	주일 오전 3:30
주일 모인 예배-55부	주일 오전 4:30
주일 모인 예배-56부	주일 오전 5:30
주일 모인 예배-57부	주일 오전 6:30
주일 모인 예배-58부	주일 오전 7:30
주일 모인 예배-59부	주일 오전 8:30
주일 모인 예배-60부	주일 오전 9:30
주일 모인 예배-61부	주일 오전 10:30
주일 모인 예배-62부	주일 오전 11:30
주일 모인 예배-63부	주일 오전 12:30
주일 모인 예배-64부	주일 오전 1:30
주일 모인 예배-65부	주일 오전 2:30
주일 모인 예배-66부	주일 오전 3:30
주일 모인 예배-67부	주일 오전 4:30
주일 모인 예배-68부	주일 오전 5:30
주일 모인 예배-69부	주일 오전 6:30
주일 모인 예배-70부	주일 오전 7:30
주일 모인 예배-71부	주일 오전 8:30
주일 모인 예배-72부	주일 오전 9:30
주일 모인 예배-73부	주일 오전 10:30
주일 모인 예배-74부	주일 오전 11:30
주일 모인 예배-75부	주일 오전 12:30
주일 모인 예배-76부	주일 오전 1:30
주일 모인 예배-77부	주일 오전 2:30
주일 모인 예배-78부	주일 오전 3:30
주일 모인 예배-79부	주일 오전 4:30
주일 모인 예배-80부	주일 오전 5:30
주일 모인 예배-81부	주일 오전 6:30
주일 모인 예배-82부	주일 오전 7:30
주일 모인 예배-83부	주일 오전 8:30
주일 모인 예배-84부	주일 오전 9:30
주일 모인 예배-85부	주일 오전 10:30
주일 모인 예배-86부	주일 오전 11:30
주일 모인 예배-87부	주일 오전 12:30
주일 모인 예배-88부	주일 오전 1:30
주일 모인 예배-89부	주일 오전 2:30
주일 모인 예배-90부	주일 오전 3:30
주일 모인 예배-91부	주일 오전 4:30
주일 모인 예배-92부	주일 오전 5:30
주일 모인 예배-93부	주일 오전 6:30
주일 모인 예배-94부	주일 오전 7:30
주일 모인 예배-95부	주일 오전 8:30
주일 모인 예배-96부	주일 오전 9:30
주일 모인 예배-97부	주일 오전 10:30
주일 모인 예배-98부	주일 오전 11:30
주일 모인 예배-99부	주일 오전 12:30
주일 모인 예배-100부	주일 오전 1:30

주 소: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952 번지

전화: 041-634-0441(사무실)
041-633-6146(목양실)

교단 및 노회 탈퇴 공고

본 교회는 공동의회결의를 거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교단 및 노회를 탈퇴하였음을

2013년 7월 25일자로 이에 공고합니다.

로데교회 담임 김인수 목사 외 교우일동

로데교회 담임 김인수 목사 외 교우일동

로데교회 담임 김인수 목사 외 교우일동

로데교회 담임 김인수 목사 외 교우일동

로데교회 담임 김인수 목사 외 교우일동

로데교회 담임 김인수 목사 외 교우일동

로데교회 담임 김인수 목사 외 교우일동

로데교회 담임 김인수 목사 외 교우일동

로데교회 담임 김인수 목사 외 교우일동

로데교회 담임 김인수 목사 외 교우일동

로데교회 담임 김인수 목사 외 교우일동

로데교회 담임 김인수 목사 외 교우일동

로데교회 담임 김인수 목사 외 교우일동

로데교회 담임 김인수 목사 외 교우일동

로데교회 담임 김인수 목사 외 교우일동

바른성경선교회

한빛교회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특별세미나

강의내용

(1) 하나님의 구속사로 본 일곱절(레23)
(2)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표징이 일곱절 안에 있다
(3) 노아의 때를 앞둔 인자의 때를 안다(마 24:37)
(4)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7가지 동질성(마 21:12)
(5) 대상: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목사, 전도사, 일반성도들

• 광고후원: 작은 구름의집 선교회
• 강의의 저서: 20여종 특별발행
• 필적자 전원에게 '영약의 무리, 저서 1권씩 기증, 마라나다!'

강사 손기태 신학박사 (본지 교인)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경춘로 855-37(경춘 전철 금곡역 차로 5분 거리)
전화 031)592-7079, 594-3733(Fax 전용)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천교회

ANCHEON PRESBYTERIAN CHURCH

동어: 제1차 나라, 거룩한 백성 된교회!

1. 설립 목표

1. 제사장 나라 됨의 실천 목표
2. 교육을 통해서 다라 놓는 자선 교회(시126:5-6절)
3. 선교를 통해서 다라 놓는 자선 교회(행13:1-3절)
4. 성경을 통해서 다라 놓는 자선 교회(골4:10-20절)

2. 거룩한 백성 됨의 실천 목표

1.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신5:12-15절)
2. 만민에게서 선수하지 않는 성도(골3:1-12절)
3. 악한 자를 배려할 줄 아는 성도(골4:1-12절)

담임 서정환 목사

(445-380) 경기도 하성시 안성동 138-153
Tel.(031) 234-0511, Fax.(031) 234-7751

조에 교정선교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884-5 202호

☎ 070-8632-6993 / 010-3035-5704

담임 유운주 목사 조예/생명살리는 교정선교

법무부 교정위원 청송교도소

영적복음가수 청주교도소

직업(직업훈련소) 춘천교도소

직업(직업훈련소) 춘천교도소

직업(직업훈련소) 춘천교도소

직업(직업훈련소) 춘천교도소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원예담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오전 예배 1부:09:00 (오전) / 2부: 11:00 (오전)

주일오후 예배 02:30 (오후)

삼일기도회 07:30 (오후)

새벽기도회 월~금 05:30 (오전) / 토 06:20 (오전)

부사별기도회 금요일 09:00 (오후)

새가족 12:30 (낮)

청년부 02:00 (오후)

청소년부 11:00 (오전)

초등부(1~6학년) 09:00 (오전)

유치부(6~7세) 11:00 (오전)

영아부(3~5세) 11:00 (오전)

관악구 신원로 3길 59-9(8/2) (구.신림1동 1612-7)

☎ 02)859-3671 FAX 02)859-3673

☎ 02)859-3671 FAX 02)859-3673

다니엘서 4장 강해 (IX)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간다

들짐승, '너의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게 되리라'

②하늘의 이슬로 왕을 젖게 한다는 것은 왕에서 쫓겨 났어도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7년 동안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 받고 살게 한다는 것이다. 교만하여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서 기고만장한 것을 배어서 끝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베지만 그루터기는 철과 못으로 싸매고 하늘의 이슬로 젖게 하라는 것은 일곱 해 동안의 징벌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다는 것이다. 짐승같이 되어지는 큰 고통, 환란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하늘의 이슬로 일곱 해 동안 젖게 한다는 영적의미이다.

③ '일곱 때' (16절) 느부갓네살이 징벌로 경험한 '일곱 때'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앞으로 있을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 7년 환란이 일곱 때와 같은 것이다. 7년 환란이 깨닫는 우리에게는 복된 것인가? 화이고 저주인가? 복된 것이 된다는 것으로 깨닫는 자는 정말 지혜로운 자이다.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오늘날 환란 전에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세상적인 미련이 좀 있다. 육적인 찌꺼기가 완전히 빠지지 못한다. 그러나 환란의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서 들들 갈리면서 찌꺼기가 완전히 빠져 버리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9장에 5개월 '황충 이의 화'에 의하여 전갈의 쏘는 고통을 겪으면서 세상에 살고 싶은 미련이 온전히 빠져 버리는 것이다. 아서 순교했으면 좋겠다고 남모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환란이 내 안에 있는 세상미련도 찌꺼기도 빼내서 온전케 하여 순교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사랑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늘의 이슬이 일곱 때를 왕에게 젖게 하면서 보전시키면서 일곱 때가 지나면서 총명이 돌아온다.

④ 그루터기(15절)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징벌로 다스린다. 일곱 때의 짐승과 같이 하게 하는 것이다. 이 징벌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다. 징벌로 끝내 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루터기는 남겨두신다는 뜻이다. 회개하고 총명이 돌아오게 되니까 왕좌가 회복되게 하신다.

이와 같이 오늘날 교회도 똑같이 하신다. 복음과 진리로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고 육안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까? 환란을 주어 징벌적인 것을 통하여 깨끗케 하고, 정결케 하신다.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루터기를 남겨둔다는 것이 그 뜻이다. 그래서 합당한 복을 받게 하는 것이다. 영광을 주시기도 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된다.

⑤ '너의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게 되리라' (32절) 들짐승은 주인 뜻과 관계없이 자기 맘대로 하는 것을 이미 말했듯이 하나님에 의하여 자기가 왕이 되었고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 세우고 부흥케 하시고 위대케 하신 역사를 묵상하고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들짐승이 되고 있는 것이다. 들사람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영적상태가 그렇다는 것이다. 너는 들짐승이니까 들짐승과 함께 거하라라는 것이다.

우리들도 들짐승과 살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에 결박돼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내 임의'대로 하면 '들사람'이 되는 것이다. 들짐승인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을 샘물로 보여준 것이다. 이것을 보고 깨닫지 못하면 미끄러지는 것이다. 시편 49:20절에 보면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다. 무엇을 깨닫지 못하느냐? 왜 우리를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서 살게 하시는가? 이것은 이세상의 물질은 대대로 상속하고 그것을 물려받아 잘살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위하여 이 땅에 우리를 보내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물질도, 은사도, 능력도, 살아갈 수 있는 건강도 주고 인생을 주신 것이다. 전부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위하여 열매 맺는 것으로 찬송을 하고 주신 은사를 주님을 위해 쓰는 것이다. 간단하다. 방황만 바꾸면 된다.

그러나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다. 느부갓네살도 자기가 왕이 된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짐승같이 된 것이다. 짐승이 돼서 풀을 먹는다. 씨가 없는 풀을 먹는다. 하늘나라의 영생이 없는 금생의 분깃으로 사는 것을 말한다. 영생을 위해 사는 삶은 씨가 있는 채소나 씨가 있는 과실을 먹는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금생의 부귀영광 그것으로만 기뻐하니까 풀을 먹고 사는 것과 같으니까 실제로 짐승이 돼서 직접 풀을 먹으라는 것이다. 그의 상태가 그러니까 소가 되게 하고 풀을 먹게 한 것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국수 먹고, 쌀밥을 먹는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중심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과 관련된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국수 먹고 쌀밥 먹는 것이 아니라 씨 없는 풀을 먹는 것이다. 그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아니면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분이 원하는 뜻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중심이 서면 이것은 풀을 먹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영생의 양식을 먹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중심이 어찌나? 를 말해 주는 것이다.

⑥ 그의 머리털(33절) 머리털은 성경에서 지혜를 상징한다. 삼손의 머리털을 깎지 않으므로 힘이 나온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머리털은 독수리의 머리털 같다. 독수리의 머리털은 독수리와 같은 지혜다. 독수리는 썩은 고기를 양식으로 삼는다. 독수리의 지혜는 멸망으로 끝나고 말 것에 대한 지혜다. 멸망을 위하여 지혜로운 자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복을 누리는 여기에 지혜가 출중하고 여기에 진리지식으로 살면 하나님 지혜의 머리털이 있는 것이다. 독수리의 머리털은 멸망으로 끝나는 것에만 지혜가 출중하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영토를 확장하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키우고 등등. 이것이 전부 독수리의 머리털이다. '멸망의 지혜다', '마귀의 지혜다', '하나님과 닮은 지혜다'.

⑦ 그의 손톱은 새들의 발톱과 같다. 손은 일하는 손이고 베푸는 손이다. 그런데 움키는 손톱이 된 것은 자기가 움키는 것만 좋아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영생의 열매를 맺는 것은 퍼져서 베푸는 손이 된다. 주는 손이 된다. 성경에 '받은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다.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다. 새의 발톱같이 움키는 것은 화다. 주고, 베푸고, 나누는 것이 복이다. 그러면 자꾸 퍼주면 나는 어떻게 사는가? 이것이 문제다. 그런데 주라하신 하나님이 또 어떤 방법으로든 공급해 주신다. 없는데 어떻게 주느냐? 살펴보면 자기에게 줄 것이 있다. 그것을 믿음으로 주면 적은 일부터 주게 만들어 열매 맺게 하신다. 느부갓네살의 손은 들어오면 나가지 않는다.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실제

로 새의 발톱처럼 만들어 버린 것이다. 느부갓네살왕에게 중심이 돼서 일곱 해를 청초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징벌은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였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종말에 환란을 예비해서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징벌을 주시는 것을 사랑으로 받고, 앞으로 있을 '개국이래로 없던 환란' 즉 '7년 환란'을 우리에게 순교케하여 최고의 영광, 천년왕국에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통치하며 천년동안 열매 맺게 하는 장자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달아야 한다.

(3)환란을 통해 결국 복되게 하신다 (34~37절)

느부갓네살왕이 하늘을 향해 내 눈을 들었더니 명철이 다시 돌아 왔다. 하늘을 향하면 하늘에 누가 계신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그 아버지는 영광의 아버지다. 느부갓네살에게 이땅에 왕으로 보내서 징벌을 통해 깨우쳐서 영광을 입혀 영생을 하게 할 아버지가 하늘을 향해 내 눈을 들었더니 영광의 아버지가 보이는 것이다.

명철이 다시 내게 돌아 왔다는 것은 깨달은 것이다. 무엇을 깨달았나? 바벨론 제국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왕국이다. 그분의 권세로 통치해서 이렇게 커진 것이다. 종전에는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다뤘다고 알았는데 이제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7해 동안 소처럼 돼서 풀을 먹고사는 징벌을 받았고 버릴 수도 있는데 다시 깨우쳐서 자리를 세워주 더 영화롭게 하여 영광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영광을 입혀주시어 이일을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의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찬양하고 존경하는 것이다. 즉 세가지를 깨달은 것이다. 첫째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나라의 왕이 실재하심을 깨달은 것이다. 둘째는 징벌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다. 셋째는 영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은 것이다. 이 세 가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대한교회 노회장
본지 상임이사



칼럼

수평선과 평행봉

병원은 어느 곳을 가나 환자들이 가득하다. 큰 병원 일수록 환자들은 더 많다. 중환자들은 갈수록 더해가고 있으며, 교통사고 등으로 장애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장애는 영원한 고통인 것이다.

건강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행복이다. 건강은 자신이 관리해야 한다. 담배를 피워 악성 연기를 빨아들이고, 독한 술을 마시고, 음식에 절제가 없다면 본인 스스로가 각종 질병을 만드는 것이다.

맑은 공기와 절제된 음식을 섭취하면서, 자신에 맞는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신체의 비만은 질병의 요인이 된다. 발바닥은 제2의 심장이라고 의학계에서는 말한다. 걷는 가운데 체중은 감소되고 튼튼한 몸매를 만드는 것이다.

건강은 좋은 인격이 동반되어야 한다. 인격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서 배우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식사할 때 오른손으로 수저와 저분을 잡는다. 오른손으로 연필을 잡는다. 신발은 반듯하게 벗어 놓는다. 어른에게 경어를 사용한다. 허리 굽혀 인사한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등 수많은 생활습관을 부모의 가르침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다. 무질서한 가정의 아이는 성장해서도 무질서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인격은 사회구성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상대방에게 이해와 용서가 있으며, 위로와 격려가 있다면 가정에서나 직장, 사회에서 화목을 이루는 고귀한 성품인 것이다. 이러한 인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신을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중에 좋은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다.

믿음생활도 인격을 겸비해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 하셨다. 신앙에 인격이 없다면 고귀한 빛을 가리우는 것이다. 성경의 잠언서는 윤리적이고 인격적인 삶을 강조한 말씀이다. 골짜기 없는 수평의 신앙으로 지성과 감성을 겸한 인격의 삶을 살아야 한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한다면 그 이상의 화목은 없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신 유산을 섬기고 겸비하지 않은 삶을 살 때, 애굽의 종되어 오랜 세월 고통 속에서 살았다. 학대와 고난의 삶속에서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 절규에 찬 눈물의 기도를 할 때 모세를 세워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다.

열마리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동행 중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

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며 서로 말한 것처럼 생활이 곧 신앙이 되어야 한다. 끝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섭리를 느끼는 기쁨으로 찬양해야 한다.

평행봉은 신체의 발달과 균형을 바로 잡아 주는 좋은 운동이다. 수평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사용할 수 없다. 평행봉은 양쪽 모두가 수평으로 높이, 길이, 넓이가 같아야 한다. 평행봉에서 후리, 대차 등의 운동은 균형 잡힌 몸매를 만들어 준다.

오늘 우리국민들은 국회 의정 활동을 보면서 여·야의 투쟁의식 만을 느끼고 있다. 서로간의 막말로 가는 정국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불안하다. 인격을 존중하고 모든 의정을 심도 있게 협의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 싶다. 좋은 의정이라면 자당의 정책을 포기하면서도 합의의 결정하는 격상된 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평행봉처럼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같은 대등한 수평적 차원의 정치를 국민들에게 보여 준다면 국가의 발전과 번영은 급속 할 것이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이해와 화목이 있다면 의정을 다루는 국회로서 세계의 추앙을 받을 것이다. 자당의 정책만 앞세우지 말고 진정 국민의 대변을 맡은 자로서의 국정을 이끌어 균형잡힌 국가 발전을 희망한다.

지난 7.27 한국정전 60주년을 맞아 각국의 참전 용사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6.25 남침 전쟁의 역사를 짚은 세대들에게 증인으로 보여 주었다. 6.25를 복합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종북좌파 세력들에게 각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땅벌이 난무하는 밤에는 모든 것이 자라지 못하고 죽어간다. 갈수록 더해 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땅벌을 정부는 대공측면에서 철저히 색출 검거하여, 사회 혼란이 없는 안정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간첩 종북좌파 세력들의 땅벌 활동을 차단하는 강력한 법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사상으로 완전 무장시켜 다시는 6.25 전쟁과 같은 비극이 없는 발전국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서영웅 목사

푸리안 정로교회
본지 상임이사



표어 :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당회장 정대성 목사



담임 임찬미 목사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

행함으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남복된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205-18 ☎ 070-7443-7277

대한예수교 장로회 화정총현교회



당회장 이효은 목사
(지저스타임즈부흥사회의 총재)

시무장로 : 신오식, 정종국, 김홍령

화정교회는 말씀이 좋고,
행복한 교회로
가정을 귀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2013년

"사랑으로 기쁨으로 열정으로 섬기며 전도하여
갈수록 더 좋아지고 더욱 아름답게 하소서"

늘 노래하는 자는 무병장수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는 자는 영적으로 무병장수합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시어 다시편91)

예배시간
주일오전예배 :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 오후 2시
수요예배 : 오후 7시30분
금요기도회 : 밤 9시
새벽기도회 : 새벽 5시 (주일~금요일)
유·초등부 : 오전 9시
중·고등부 : 오전 9시
청년부 : 오후 3시30분

찾아오시는 길
(도시버스) 1 종산 → 화정 85-1 교정동 → 송정정철역 850 교정동 → 행신역 706 교차 → 서울역 7728 대화동 → 신촌
(지하철) 82 내곡동 → 영등포 1900 분당선 → 서울역
(시외버스) 3700 의정부 → 인천
(마을버스) 6, 6-1, 6-4
(지하철) 3호선 화정역 3번출구 (도보 8분거리)

주소 : 412-82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38번길 27(화정동)
교회(031) 966-0015 (FAX겸용) 자택 (031) 965-7682

www.cmno.org

대한예수교 장로회 함께하는교회

7대 비전!

- 1.VISION2030(2020년에 3,000명 목표)
- 2.전교인제자화로 평신도를 깨우는 교회
- 3.성도의 위로와 치유가 있는 교회
- 4.지상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 5.나눔과 섬김을 생활화하는 사랑이 있는 교회
- 6.예배를 통한 영적성장과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 7.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참여하는 팀 사역이 있는 교회



이상재 담임목사

예배안내
주일
1부 예배 오전 7:00 지파1층 중대예배
2부 예배 오전 9:00 3층 본당
3부 예배 오전 11:00 3층 본당
오전예배 오후 4:00 3층 본당
오전예배 오전 11:00 지파1층 중대예배
지파예배 저녁 7:00 지파1층 중대예배
기도회 저녁 9:00 3층 본당
새벽기도회 새벽 5:00 지파1층 중대예배

찾아오시는 길
신촌역 → 화정역 → 화정역 → 화정역 → 화정역
신촌역 → 화정역 → 화정역 → 화정역 → 화정역
신촌역 → 화정역 → 화정역 → 화정역 → 화정역
신촌역 → 화정역 → 화정역 → 화정역 → 화정역

우편 : 423-060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864
TEL. 02-898-0539-40 FAX 02-2681-0540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포주안교회

교회사명선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이 세상에 주신 주님의 교회를 선언하
며 다음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예배안내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2부 예배 오전 10:00
3부 예배 오전 11:30
4부 예배 오후 7:00
수요일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 금요일예배 오후 9:30
토요일 청년대학부예배 오후 5:00
매일 새벽예배 오전 5:00
유치부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1부 오전 8:30 3층 대예배실
2부 오전 10:10 2층 영신강을
중등부 오전 9:00 2층 영신강을
고등부 오전 11:10 2층 영신강을
영아예배 오후 1:30 5층 두란노들



모상련 담임목사

섬기는 분들

부목사 정동현 모성선 송호성 모성선
사서서신 김은진 김미경
안윤기 김진희
장장회(은혜) 사기욱
전도사 주정희 배순단
교육전도사 송신택
시무장로 고재민 송영문 천은상
정순안 이현필 주종필
김정희 김명희 김학진
김신호 원복희(유지)
노남규 이병화
문환문 이병화

찾아오시는 길
신촌역 → 화정역 → 화정역 → 화정역 → 화정역
신촌역 → 화정역 → 화정역 → 화정역 → 화정역
신촌역 → 화정역 → 화정역 → 화정역 → 화정역
신촌역 → 화정역 → 화정역 → 화정역 → 화정역

전남 목포시 북항동 1671-15(북항주택단지)
전화 : (061)272-4908, (061)278-0692 팩스 : (061)278-0693

“복음상담실” 특강

사도영성신학원, 상담학 박경혜 박사 (5)

상담내용 : 주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여학생입니다. 제가 두 살 때 술꾼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는 저를 키우시느라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사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는 제가 흑어 다칠까봐 놀이터에도 같이 가지거나 집안에서만 놀게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엔 학교시간에 정류장에 미중 나오시는 어머니 때문에 저는 방과 후 친구들과 어울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늘 ‘남자는 믿지 말라’고 주입시켰습니다. 교회생활도 예배시간 외의 참석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얼마 전 반 친구 세 명과 함께 미팅을 하고 노래방에 갔다 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이 항상 불안합니다. 어머니를 바라 볼 수도 없고 매사에 의욕이 떨어져 아무 것도 하기 싫고 기쁨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심한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저는 가엾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런 저의 마음을 어머니께 이야기 할 수도 없고 저는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 자매님께서 여태껏 홀로 고생하신 어머니의 뜻을 거스렀다는 죄책감과 이제는 어머니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 사이에서 심하게 갈등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것을 내적으로만 감추어야 하니 우울증 세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매님이 품고 있는 생각은 정상적인 것이지, 죄책감에 빠진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커가면서 부모의 울타리를 점점 벗어나 보다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또한 부모를 떠나 짝을 만나 새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창2:24).

어머니는 딸에 대해 지극한 사랑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매님에게 있어서는 큰 굴레요, 속박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 입장의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어머니를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도 한때 행복한 가정을 꿈꾸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 때

문에 깨지고 젊은 나이에 어린 자매님을 데리고 세상 풍파를 겪으면서 아버지를 포함한 세상 남자들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어머니를 원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이제는 자매님의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어머니는 세상에 의지할 사람은 자매님뿐이고 자매님 또한 그렇게 어머니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돌보심으로 모든 염려를 다 맡겨드려야 합니다(벧전5:7).

이제는 자매님께서 지속적으로 어머니와 깊은 얘기를 나누는 기회를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자매님은 하나의 소유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은 애정이라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벧전2:11).

육적인 소유욕을 주님 중심으로 바꾸실 수 있도록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직한 것은 어머니로부터 자유롭고 싶어하기보다는 어머니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자매님이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생활에서 보여드리으로써 어머니께서 마음을 놓으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머니로 하여금 딸 자식을 잃어버리는 허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내 딸이 이만큼 컸구나?라는 대견한 생각이 들게끔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것(신5:16)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로부터의 분리 아닌, 어머니께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다가서시는 자매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박경혜 박사
영성신학원상담학교수

하나님께 드린 기도

“주님, 여러 교회를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를 더하지 말게 하옵소서. 종교적 허세만 가득하고 정작 생명을 임태치 못하는 불임의 교회를 또 하나 세우지 말게 하소서. 사람을 위한 집합들만 줄줄이 만들고 정작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람을 키우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교회를 만들지 말게 하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명패한 자기 인식 없이 행사에 바쁜 사교 클럽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왕국을 전락적으로 이 땅에 구축하는



생전의 옥한흠 목사

아전 병커가 되게 하시고 행정에 분주한 동사무소가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 스스로를 감한 건물에 가두지 말고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각자가 속한 지역(local)에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증명하세요.

✎ 잠깐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 작품 중에 이런 것이 있다

어느 목사님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다. 한 여인은 자기는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또 한 여인은 자기는 일생 이렇다 할 큰 죄는 짓지 않았지만 자질구레한 잘못은 많다고 했다.

“당신은 당신이 들 수 있는 가장 큰 돌덩이를 가져오시오. 그리고 당신은...” 목사는 이번에는 일생동안 이렇다 할 큰 죄를 지은 기억이 없다는 여인에게 말했다. “조그만 돌맹이를 치마폭에 가득 주워오시오” 한참 후에 두 여인은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여 여인은 커다란 바윗 돌을 큰 강거머리 옮겨왔고, 다른 여인은 새알만한 잔 돌을 치마폭 가득 주워왔다.

그러나 목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미안 하지만 이번에는 그 돌맹이들을 제 자리에 갖다 놓으시오” 큰 바

윗돌을 가져온 여자는 다시 강거머리며 바윗돌을 제 자리에 갖다 놓았다. 어디서 가져온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목사는 목사는 “하나님께 지은 죄도 바로 이런 것이요 당신은...” 목사는 일생동안 별로 큰 죄를 짓지 않고 자질구레한 잘못된 저질렀다는 여자에게 말했다. “하루하루 이 러저러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죄책감 없이 일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짓고 회개 한번 하지 않았소. 그러나 이 여인은 큰 죄를 짓고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총이 함께 하실 것이요” 목사는 그러며 큰 죄를 지은 여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었다.

황성주 박사의 건강학

불고기의 비밀! (47)

건강을 지켜주는 불고기와 양념의 놀라운 조화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중 쇠고기만큼 맛이 좋고 영양가가 높은 음식도 드물 것이다. 옛부터 허약체질이나 병후회복에 가장 많이 써온 것이 쇠고기였다고 한다. 그리고 세계 어느 곳이나 우리 민족이 사는 곳이면 잔치집에 당연히 등장할 정도로 겨례의 사랑을 받는 음식이 불고기이다.

불고기 자체 영양도 영양이 러니와 양념의 영양도 뛰어나다. 쌀밥, 채소와 더불어 불고기의 양념에 사용되는 마늘, 파, 참기름, 생강즙, 배즙, 깨소금 등이 절묘한 예방의학적 조화를 이루고 있다. 현미식을 하면 식사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고 간식을 하지 않아도 배가 든든하다. 그러나 흰 쌀밥을 먹으면 쉽게 허기지고 충격감이 없다. 백미에는 완전식품인 현미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의

상당량과 대부분의 식물성 기름, 섬유질, 미네랄, 비타민이 빠져 나갔기 때문이다. 흰 쌀밥에는 콩을 섞거나 육류를 곁들여야 어느 정도 영양의 보완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흰 쌀밥에 불고기는 천생연분이다.

불고기를 먹을 때는 대개 상추, 숙주 등의 채소에 싸서 먹게 되는데 이는 섬유질과 비타민C의 공급원이 된다. 불고기가 양질의 단백질이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으나 포화지방산이 대부분인 동물성 기름이 동맥경화와 심장병, 뇌졸중을 유발시키는 주원인이 된다는 것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불고기를 먹을 때 으레 참기름에 찍어 먹는데 이 때 참기름에 포함된 식물성기름(불포화지방산)이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이다. 또한 불고기를 먹을 때 마늘을 먹게 되는데 마늘에는 셀레늄이라는 미량원소가 함유되어 있어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배출한다. 또 셀레늄은 노화방지 효과가 높다.

때문에 동물성기름이 많고 동물성 지방조각에 축적된 농약과 중금속 등을 해독함으로 불고기를 먹을 때 마늘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 물론 적정수준의 양을 섭취했을 때를 전제로 한다.

한편 양념으로 쓰이는 배즙과 식후에 디저트로 등장하는 배는 단백질 분해효소와 섬유질, 식세포가 많아 소화도 도와주며 육식위주의 부작용인 변비를 예방해준다. 현대의학과 식품영양학이 밝혀낸 우리 조상들의 직관적인 건강지혜가 놀랄 뿐이다. 영양에 대해 바른 지식을 가지고 골고루 다양하게 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의 비결임을 새삼 깨닫는다.



황성주 박사

“박윤식 씨, 전도관 지관장 출신 확실해”

진용식 목사,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승소 감사예배 및 기자회견’ 개최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박윤식 씨와의 2년간 형사소송 끝에 진용식 목사(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회장)가 승소했다. 진용식 목사는 26일 해오름교회에서 승소 감사예배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진용식 목사는 지난 2010년 5월 20일 일본 동경 크리스천 센터에서 이단대처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단 측 목회자가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 신분이 확실한 30여 명의 목회자만 참석한 세미나였다.

이에 진용식 목사는 박윤식 씨가 ▲전도관 지관장 출신이라는 점, ▲통일교와 전도관 교리를 혼합해서 가르치고 있는 점, ▲비밀교리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단성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박윤식 씨 측은 진용식 목사의 강의를 녹취한 자료를 근거로 법적소송을 제기하고 2년 동

안 재판을 진행해 결국 지난 2013년 4월 11일 진용식 목사의 무죄처분으로 판결이 났다.

‘박윤식 씨가 전도관 지관장 출신’이라는 발언이 사실인지, 아닌지의 여부였다. 이전에도 언론사와 한 목사가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아 유죄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진용식 목사는 자칫 불만일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세계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대표회장 박형택 목사)와 이영호 목사(아레오바 고사령관 대표), 박윤규 교수(충신대)의 도움으로 승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진 목사는 법원에 ▲통일교 역사편위원회가 발간한 <사보> 제166호, ▲전도관 측에서 발행한 국제기독교뉴스 1957년 9월9일자 신문, ▲화순전도관 박윤식 전도사가 신문사를 방문했다는 내용, ▲화순전도관

(박윤식 전도사) 공복절 축하 광고가 나온 자료 등 박윤식 씨 전력과 관련한 다수의 자료가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런 박윤식씨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 “박윤식 씨 측이 매우 곤혹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박윤식 씨가 전도관 출신이라는 것을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지저스타임즈 언론부흥사협의회

본 신문방송 언론부흥사협의회 단체는 기독교언론단체로서 한국교회와 기도원 개 교회, 농어촌 선교에 사명을 가진 분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하며 부흥사로 뜻을 같이 할 것이며,

본 단체는 보수적이며 진전교단에 속한 사역자들로서 초교파 부흥사단체이다. 이 시대의 사명감당을 위해 뜻이 있는 사명자라면 본 단체는 크게 환영하며 회원으로 맞이합니다.



총재
이효은 목사
(화정총교회)



대표회장
정기환 목사
신문방송 대표이사



부총재
정기환 목사
(전원중앙교회)



부총재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부총재
정대성 목사
(강남북동교회)



부총재
곽동훈 목사
(행복의집교회)



연수원장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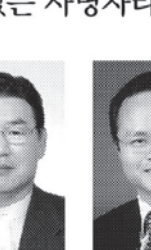
사무국장
곽영민 목사
(등불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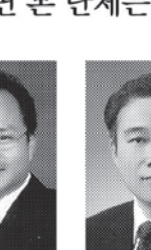
강사단장
박수영 목사
(행복샘교회)



상임회장
홍창표 목사
(한경총 사무총장)



상임회장
박동호 목사
(벧엘교회)



상임회장
권세능 목사
(주천성교회)



상임회장
김동기 목사
(백석대평생교육원)



상임회장
최낙현 목사
(산성그리스도교회)



지문
박양우 목사
(중부권지사장)



지문
이범성 목사
(한기법대표회장)



지문
허식 목사
(한경총 직전 총회장)



지문
최순길 목사
(논설위원)



지문
서영웅 목사
(유리태대학총장)



지문
박한규 목사
(수도권 은목교회)



실무회장
여현관 목사



공동회장
주은총 목사
(은총기도원원장)



공동회장
임요한 목사
(문화부 부장)



공동회장
정성준 목사
(벧엘교회)



공동회장
이기학 목사
(포항지사장)



공동회장
김명옥 목사
(부흥사관학교 교장)



공동회장
전진성 목사



공동회장
강신숙 목사
(강신숙예술선교회)



공동회장
우슬초 목사
(주성회각장예교회)



공동회장
임해숙 목사
(서울방주농교회)



공동회장
김부경 목사



회계
유윤주 목사
(조에 교정교회)

■ 2013년 제5차 이사회가 8월 23일(금) 오전 11시 이사장 정기환 목사시무 전원중앙교회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2동 579-5(전원마을) 교회 : 032)321-9101, 9102, 9109 자세한 안내는 사무국장 곽영민 목사 010-2080-0651, 이사장 정기환 목사 010-2956-9191 이사님들께서 다함께 기쁨의 만남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제 68주년 8.15 광복절 기념 연합예배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이하-한개협 이사장 양정섭 목사), 사)세계개독교교회연합회(이하-세계연 총재 김권현 목사), 사)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 (이하-한교협 대표회장 박형렬 목사)등 3개 단체가 연합하여 8월 12일 종로구 연지동 여전도회관에서 대표자 200여 명이 모여 8.15 광복절 68주년 연합예배를 드렸다.

사)세계연 상임부총재인 노종관 목사의 인도로 사)세계연 대표회장 최옥석 목사가 기도를, 예장부흥총회 부총회장 서경숙 목사가 신명기 8장 1-6절을 봉독하고, 개혁신당단의 찬양이 있는 후 사)한교협 대표회장 박형렬 목사는“광복을 통한 애국심”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박 대표회장은 특별히 대한민국의 역

사교육과 역사현장의 보존성이 중요하며 투자들의 열정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희생한 것을 기억하며 일본의 야만적 행위를 규탄하며 국방력을 강하게 해야 하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조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철저한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해야 하며 신앙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국가관을 가지고 애국심을 가져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 특별기도에는 세계평화와 남북통일을 위하여 예장합동영성총회 중경총회장 양인천 목사, 국가와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예장중앙개혁총회 총회장 박길순 목사, 한국교회와 1,200만 성도를 위하여, 예장영성총회 총회장 김정환 목사, 일본회개촉구와 우리나라 독도 지키기 위하여, 예장합동예합총회 총무 정현 목사 등이 각각 기도했다.



이러 사)한개협 양정섭 이사장의 인사
가 있었으며 예장개혁1총회 총회장 강희

준 목사의 만세삼창과 사)세계연 총재
김권현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여름 밤하늘을 달군 아름다운 평화의 하모니

최북단 백령도에서 국제장애인문화엑스포가 거행됐다!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이사장 최공열)는 8월 12일(월)~14일(수)까지 우리나라 최북단인 백령도에서 국제장애인문화엑스포를 진행되었다. 2013년은 광복 68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패속선을 타고서 4시간 이상 달려온 백령도는 비장애인들에게도 결코 만만한 거리가 아니었다. 매년마다 국제장애인엑스포를 진행하여 온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는 해방대가 지기고 있는 분단의 최전선인 이곳에서 평화음악제가 거행되었다.

해방대 6여단(단장 조동택 준장) 대공연장에서 펼쳐진 이번 평화음악제는 발달장애청소년들로 구성된 나눔웹버오케스트라가 무대위를 식혀줄 아름다운 화음을 선사했다. 또한, 성악가 백승종 교수, 성악가 윤지경씨 등이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여 한여름밤의 아름다운 꿈들을 노래했다. 그 외에도 이영화 춤터 무용단의 아름다운 몸짓과 신명나는 난타공연이 펼쳐져 백령도 주민은 물론 관광객, 해방대장병 모두에게 즐겁고 흥겨운



무대가 되었다.

백령도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들어진 무대는 관객과 공연진 모두에게 잊혀지지 않은 추억으로 아로새겨졌다. 이번 백령주인과 함께한 평화음악제 공연은 장애인예술인들의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가 문화와 예술을 통하여 전달되는 등 소망과 희망이 넘치는 장이되었다.

또한 국제장애인문화엑스포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최북단인 백령도를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돌아봄으로써 서해 5도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었다.

게다가 백령도는 예부터 빼어난 자연환경과 풍부한 먹거리를 자랑하고 있다. 공돌해변(천연기념물 제392호)과 길이 3km, 너비 250m의 넓이에 가는 모래로

웨신총회 임원회 및 실행위원회 열어

98회 정기총회에 참석할 총대를 확정짓는 등 교단발전에 뜻을 모아

예정웨신총회(총회장 이재갑 목사)는 지난 1일 1박2일로 충남 연산 주안교회, 기도원(전복수 목사)에서 제97회기 11차 임원회 및 제4차 실행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40여명의 총회 임원과 실행위원이 참석하여 1부 개회예배, 2부 임원회, 3부 실행위원회를 진행되었다.

제98회 정기총회를 앞둔 웨신총회는 참석하는 총대명단을 최종 확정지고, 상회비 조정안과 책정, 상비부 조직보안

등을 논의 했다.

아울러 대한노회와 장한국 목사의 제명 결과보고와 본지발행인 정기남 목사의 교단거취에 대한 설명과 인사의 말씀이 있었다. 주안교회기도원 전복수 목사, 윤덕순 목사는 대규모 노인 요양원 시설에서 자연 친화, 유기농 먹거리, 양봉 등을 손수 경영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치유의 은사 등을 통하여 각종 난치, 불치병 환자들을 치



료하고 있다. 이날 웨신총회 임원들과 실행위원, 자문 등은 대운산 마천대 구름다

리를 수양하고 그동안 자진 심신을 재충전하고 섬기는 교회를 향해 발걸음을 뒀다.

우리 언론들 북한 ‘전승절’ 이 뭔가?

6.25 당시 우리 국군 및 UN군의 인선상륙작전에 이어 38선을 돌파 북진(北進)을 거듭할 때 한반국경지역까지 도망을 쳤다가 ‘휴전협정’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한 남침전범집단 수괴 김일성이 1973년 휴전협정 20주년을 맞아 패전(敗戰)의 악몽을 떨쳐버리고 주민에게 호전성(好戰性)을 주입하기 위해 휴전협정기념일을 ‘전승기념일’(戰勝紀念日)로 둔갑시켰다.

올해 7월 27일은 휴전 60주년 기념 일로써 6.25 남침전범집단 3대 세습 살인폭압독재자 김정일이 취악한 권력 기반을 다지고 주민의 충성심을 쥐어짜기 위해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정을 보도하는 연합통신을 비롯하여 유수한 신문방송통신이 하나같이 전범집단 선전선동구호에서 유래 된 ‘60주년 전승기념일’이라는 표현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대체 6.25 남침전범집단 북괴군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상대로 정승(戰勝)을 했다는 말인가? 우리 언론이 미치지 않고서는 이따위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북괴군이 전승을 했다면, 대한민국

국군과 UN군이 패전(敗戰)을 했다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는 의미가 된다

논설위원 백승묵 자문
hugepine@hanmail.net



하고 있다는 국민 의식(意識)의 문제이다.

우리 언론이 이처럼 타락한 주원인은 6.15 반역 선언 직후인 2000년 8월 5일~12일 간에 당시 문화관광부장관 박지원의 인술로 한겨레 최학래를 신문사 사장 대표로, KBS 박상권을 방송사 사장 대표로한 남한 신문방송통신사 사장단 46명이 방북 소위 ‘8.11 남북언론합의서’를 채택 이를 실천해 온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른바 ‘남북언론합의문’은 ▲민족, 통일, 화합 ▲단결 화해 중상비방중지 ▲보도협조 교류 협력 ▲합의이행 집행기구로 남한에 ‘남북언론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북에서는 ‘조선기자동맹중앙위원회’가 담당 ▲북한 언론사 사장서을 답방 등 5개항으로 되어 있다.

남북언론합의서 재갈, 전범집단의

선전선동구호에 심각하게 오염

이는 결국 ▲반 김정일 반 북 보도금지 ▲반 민족 보도금지 ▲반 통일 보도금지 ▲반 화합 보도금지 원칙을 담은 남북관계 보도지침으로서 친북 보도를 강제하고 남한 언론에 재갈을 물려 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따위 황당한 합의를 민도충신하 전국언론노조와 기자회견가 공동으로 집행해 온 것이다.

아래는 국내 신문방송통신 미친 언론이 뽑은 기사 타이틀이다. 기자는 무슨 짓을 하고 언론사 데스크는 또 무엇을 하는가? 소위 북한학과 교수들, 대북전문가를 자처하는 사이비 논객들 ‘입’에서 튀어나오는 ‘전승절’이란 말발이다.

北, ‘전승절’ 앞두고 ‘판문점도끼만행사건’ 다시 부각, 北 ‘전승절 60돌’ 1650억원 ‘평평’ 北, 서방 언론사 대거 초청...60주년 전승절 띄우기 분주, 北, 전승절에 외신기자 대거 초청...왜?, 北 마식령스키장에 산사태...평양은 ‘전승절’ 준비, 北, 전승절 역대 최대 규모 기념행사 준비, 北 ‘6·25 전승절’ 대규모 경축 행사, 북, 공화국창건, 전승절이다.

고신 언론사 사장 선거에 ‘돈 봉투’ 오잖나

〈코람데오닷컴〉 보도, “일부 이사들, 후보에게 받은 돈 돌려줘”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교단지 〈기독교보〉 사장 선거에 돈 봉투가 오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교단 유지재단 이사회는 7월 22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기독교보〉 사장 후보 A 장로와 B 장로를 두고 투표한 결과 B 장로를 새 사장으로 선임했다. 고신 교단 문제를 주로 다루는 인터넷 사이트 〈코람데오닷컴〉은 8월 5일 〈기독교보〉 사장 후보 중 B 장로가 선거 과정에서 교단 유지재단 이사회 일부 이사들에게 돈을 뿌렸다고 보도했다.

B 장로에게 돈을 받았다가 도로 돌려준 것으로 알려진 이사는 총 세 명이다. 〈코람데오닷컴〉에 의하면 현 총회장 박정원 목사(이사회 이사장)는 B 장로에게 100만 원을 받았다가 이후에 돌려줬다. 김진욱 장로는 B 장로가 건넨 50만 원을 바로 돌려줬다. 손종기 목사는 돈 봉투를 아예 거부했다.

B 장로는 손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까지 찾아와 50만 원을 놓고 갔다. 손 목사는 우체국을 통해 돈 봉투를 반송했다. 그러나 B 장로는 또다시 손 목사 교회를 방문해 50만 원을 현금했다고 알려졌다.

〈코람데오닷컴〉은 B 장로뿐 아니라 A 장로도 이사들에게 돈을 뿌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 장로는 서너 명의

이사들에게 여비 정도의 돈을 줬다고 시인했다고 한다. 금권 선거 의혹 보도가 나가지 유지재단 이사회는 8월 6일 정기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 이사회는 갑론을박 끝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이 사건을 조사하기로 했다. 목사·장로를 각각 두 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8월 19일 임시 이사회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현 〈기독교보〉 사장은 8월 31일 자로 임기가 끝난다. 새 사장은 이번 9월에 열리는 63회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정식, 사장으로 임명된다. 사장 임기는 3년이다.

〈코람데오닷컴〉에서 기사를 보도한 이후 독자들이 이 사건을 성토하는 댓글을 달았다. ‘향신의 소리’라는 필명을 쓴 독자는 “당선자는 반드시 물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총회에서 인준 불가 운동을 벌여야 한다. 이사들은 각성해야 한다”고 썼다. ‘판야의 소리’라는 이름으로 글을 쓴 독자는 “어떻게 범죄 혐의가 있는 이들이 (조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가. 자신들도 결백 여부를 조사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이들이 무슨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운다는 말인가. 조사하려면 외부 기관에서 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교단 내 일부 목회자들은 이사회에 항의 서신을 전달했다.

일본 정부는 시대 역행적 망언과 행위를 중단하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최근 일본 부총리의 ‘나치식 개헌 발언’, 내각부의 독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 정부 각료의 신사참배 계획 등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이러한 행동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려는 것일 뿐 아니라 외교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외교적 결례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의 의지를 보여 줄 것을 촉구한다.

아소 부총리가 “나치로부터 헌법 개정 수법을 배워야 한다”고 한 발언은 가히 망언이며, 이는 식민 제국주의 역사를 답습하려는 생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인류를 무참히 짓밟으며 인권을 나락으로 빠뜨린 만행을 모방하려고 하는 것에서 잘못된 역사에 대한 반성은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이라도 정당화시키려는 속내가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부총리의 이 같은



홍재철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발언은 일본 현 정부의 모습을 한층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기에 더욱 우려가 되며,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식민 제국주의로 회귀하려는 망동을 부추기는 것이기에 염려스럽다. 일본 내각부에서 독도에 대해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한 것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아욕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새로운 도발 행위이며 침략 행위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에 대해서 일본 자국민에게 여론 조사의 방법으로 영토에 대한 인식을

묻는 것은 심각한 외교적 결례이며, 일본 자국민의 역사인식마저 자의적으로 왜곡시키는 것이다. 일본 중·고등학교 교과서 등에도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시킨 것은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역사 왜곡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며 이제는 그 범위를 확대시켜 가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일본 정부의 그릇된 역사인식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가속화시키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8월 15일 아베 총리 등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계획과 아베 내각이 출범한 이후 아소 다로 부총리, 신도 요시타카 총무상 등 네 명이 신사를 참배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아베 내각의 사람들이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과거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을 합리화시키는 것이며 전쟁으로 인해 고통 받은 모든 이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위이다. 또한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만들자는 아베 총리 식의

헌법 개정, 독도 영유권 도발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러한 행위가 북한의 핵개발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목적을 위해서 전쟁과 같은 무력적 방법을 사용하자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이고, 이러한 논리라면 모든 나라가 핵개발을 하자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시대 역행적인 일본 정부의 모습을 규탄하며, 진정성 있는 사회와 함께 반성에 걸맞은 행동을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지고 강요하는 것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올바르게 보편적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동아시아에서 전쟁을 일으킨 주범임을 인정하고 전쟁으로 피해를 입힌 이웃 국가에 대한 사죄와 보상의 조치를 취하며, 외교적으로도 독단과 고립이 아닌 상생과 공존의 방법과 대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2013년 8월 18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조강수 목사 “교회는 성령운동 회복이 일어나야한다”

환자치유대성회가 진행되는 동안 성령충만 받고 치유역사 나타나

인천시 서구 가좌4동 소재 영광교회(담임 조강수 목사사무)는 지난 7월 28일(주일)저녁부터 31일(수)밤까지 조강수 담임목사를 강사로 “환자치유대성회”가 열려 영광교회의 성도들은 물론 인근 각지로부터 소문을 듣고 찾아온 환자들과 은혜를 갈망하여 찾아온 성도들로 만원을 이루었고 집회가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열광의 불도가니가 되었다.

국내외적으로 부흥집회를 인도하며 매주 바쁜 일정 속에서도 CBS TV, 비전특강, CTS TV, 빛으로 소금으로 또한 본지 JTNTV방송에 매주 주일예배 동영상이 방영되고 있어 많은 독자들로부터 은혜를 끼치고 있다.

한국교회의 중요한 것은 부흥회는 예전에 60-70년대의 스타일이 거의 소멸되고 이제 세미나 등을 통해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일어날 때 교회의 부흥은 분명하고 확실한다.

이번 영광교회에서 시작한 부흥집회의 목적이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로 앓은병이 일어나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는 일이다. 즉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 한국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했다.

◆환자치유대성회의 성격은?

① 참된 성령의 부흥이며, 2. 성경에 원하는 부흥의 역사를, 3. 성령을 통한 성령의 권능이며, 이를 통해 부흥의 역사

가 일어나기를 확신하고 오래도록 기도로 준비해 왔는데 본교회의 자체집회를 통해 처음 시작되었는데 결과가 너무 좋았다. 자주 자체집회를 해 나갈 것이다.

지난번 집회 때 주일저녁부터 시작해서 이를 만에 벌써 많은 분들이 집회에 참석하여, 치료받고 은혜가 넘치는 모습을 보았으며, 저녁집회에서도 놀라운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일어났다.

저의 경험이지만 한국교회가 다양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성령으로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참된 부흥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 교회가 아무리 크게 성장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무너진다. 그러한 교회를 종종 보아왔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10년, 길게는 20년 후가 되면 기도원이나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없이 지나간다면 장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들이 70-80년대의 성령의 역사를 회복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현재 우리 영광교회가 적지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이제부터 영광교회는 부흥의 불길, 성령의 불길이 퍼져나가는 게 최고의 소원이고, 성도들도 이러한 소망이 있기에 새벽기도에 매달리고 있다며 성도들을 자랑한다.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은?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은 영광교회는 날마다 소망이 보인다.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지만 철야기도를 통해서 성령

의 불같은 역사가 엄청 나타나고 있어 정말 교회가 소망이 있다. 장로들,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 기도를 멈추지 말고 이어가자는데 목회자는 힘이 솟구친다. 성경은 틀림없다. 그래서 영광교회와 저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자는 것이 소망이며 부흥의 비결이 여기에 있다고 확신한다. 교회의 부흥은 입술로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철야기도에 이어 낮에는 집회를 한다. 영광교회는 집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부흥회 인도는 언제부터?

◇제가 정식부흥회를 인도했던 때는 26살부터이다. 벌써 30년의 세월이 흘렀으며 작은 몰라도 2000여회 집회를 인도한 것으로 생각된다. 26살 때 부흥집회를 인도하는데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리 말씀을 뜨겁게 증거 해도 그때비하면 능력 행하는 것이 약하게 느껴진다.

그것은 첫 번째 자신이 부족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시대적으로 보면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고 있다는 것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를 깨닫고 더 절실하게 기도에 힘써서 성령의 역사를 다시 회복하자는데 있기에 날마다 철야기도하며 강단을 지키고 있다.

◆총회부흥사회를 활성화할 생각은?

◇총회 서기로서 비전을 갖고 있다. 부흥회장이며 대표회장 장창운 목사와 같이 좀더 큰 틀에서 98회기 정기총회가 끝나면 총회부흥사협의회도 새롭게 활성화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총회와 개교회는 물론 부흥이 일어나는 비결은 성령과 말씀, 기도로 목회를 신실하게 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종을 들어 쓰시며 부흥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

◆말씀과 찬양으로 카리스마가 넘치는 특별한 비결은?

◇비결은 특별한 것은 없지만 물론 있다. 외적으로는 기도다. 밤을 새워 새벽4시까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때로는 몸이 너무 피곤한 것 외에는 거의 기도로 밤을 새운다. 그리고 음악은 본래 음자도 모른다.



또한 작사는 주일날 성령의 감동으로 시를 쓰는데 그 시가 찬양이 될 때가 많다. 찬양이 만들어지는 것은 밤새 기도하는 가운데 작사가 떠오르면 쓰는데, 찬양은 못 부르지만 목이 터질 듯이 수 없이 부르짖고 찬송을 불렀던 것이 이제는 웅만한 찬송은 다 소화가 된다. 사실은 어떤 성악을 전공한 것도 발성연습도 없었다.

음치 목사가 전문가도 감동받는, 곡조와 찬양에 장로, 권사, 집사, 교역자 등 전 성도들이 은혜 받고 철야기도에 힘을 얻어, 새벽까지 기도에 불이 붙고 있다. 영광교회 조강수 담임목사는 국내외는 물론 교단과 인천지역, 기도원 등에서 소문이 나 있다. 그가 전하는 말씀과 찬양에 각색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성경중심, 말씀중심, 기도와 찬양으로 많은 은혜를 끼치는 목사로 정평이 나 있다.

또한 목회자는 항상 겸손해야 된다

조강수 목사는 목회에 있어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겸손이라고 한다. 목사가 겸손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성도들도 외적으로는 기도에 힘쓰고, 내적으로는 자신을 낮추는 거라고 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신다고 한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는 항상 도와주시고 집회를 인도하거나 목회를 하는데 있어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고 말한다. 지난번 전주집회에서는 100%

전 성도들이 은혜 받는 역사, 치료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70-80년대에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놀라웠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부흥의 열정이 식어졌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또 다시 성령운동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령운동의 회복은 주의 종들이 먼저 성령 충만으로 앞장서라는 것이다.

◆개 교회집회에서 마지막 날은 어떻게 마무리 하는지요?

◇마지막 날은 대개 축복기도인데, 지난번 광은교회(김한배 목사)에서 집회를 마치는 날, 성령이 감동이 일어나자 헌금시간에 장로 함분은 지갑에 있는 금액 전부를 바치고 빈 지갑만 남겼다. 그 장로는 30년 동안 지갑에 있는 헌금을 몽땅 드러본 것은 처음이었다고 고백했다.

마지막 마무리로 축복기도를 할 때 억지로 내는 헌금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즐거워서 몽땅 드러지는 헌금이다. 그러니까 집회주간에 성령충만 은혜가 충만하면 그 기적이 끝까지 이어진다고 말한다. 주의 종이 무릎을 꿇은 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틀림없다고 말한다.

◆담임목사로서 영광교회의 자랑과 비전을 말씀한다면?

◇제가 본교회의 자체집회를 하는 가운데 취재를 오셨는데, 제가 이번 집회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0.1%도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들이 하는 것은 0.1%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100%로 다 해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만 의지하는 교회,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가는 교회로 비전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자체집회를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지금 내가 한다는 것이 예전에는 조금이라도 그래도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성경을 많이 보았으니까하는 그러한 생각이 이번엔 완전히 부서진 것이다. 100%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이 배꼽 밑에까지 믿어지니까 더 큰 은혜로 감동이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영광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이점이 영광교회를 섬기는 조강수 목사의 목회 비결이요 인천지역과 전국에 소문난 교회로 부흥하고 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60:1)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표어: 창세로부터 주님재림시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혼을 구하는 교회



담임목사 조강수

부 목 사: 이주홍
협력선교사: 김종록, 서승학, 차영호, 권오성
장 로: 임청수, 김성기, 이청국, 심재현, 김준현, 고재훈
영예 장로: 곽형희
심방전도사: 원명숙
교육전도사: 양승숙, 이민규, 전운구
성가 대장: 박남희
지 휘: 조은총, 박한술
반 주: 권혜영, 홍은지, 박진주, 이요한

예 배	시 간	예 배	시 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새 벽 예 배	오전 4: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감발달예배)	오후 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6:30	학 생 부 예배	오후 4:30(토)
수 요 예 배	오후 8:00	청 년 부 예배	오후 7:00(토)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농촌 명서교회를 도와주세요”

한때 서울시 독산동에서 가장 큰 볼트 네트 생산공장과 사업을 1988년도까지 해왔으며 명성을 떨쳤던 CEO 김시립 사장이었다. 그는 전혀 신학에 대해 생각도 못해보았지만 신학을 해야 한다는 지인들의 권유조차도 거절하고 있을 때, 88년도에 사업은 실패로 파산되고, 빈털터리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실패와 좌절, 처절하게 망한 뒤에야 깨닫고 나서 결심하고 서울총신과 아세아 신대원을 거쳐 목회자가 되었다. 현재 예장웨신총회 중앙노회 소속 명서교회 담임목사로 제직하고 있다.

김시립 목사(64), 남경우 사모(65)는 2003도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곳을 찾았다. 폐교가 있다는 말만 듣고 기도하면서 찾아온 폐교는 한마디로 업무가 안났다. 운동장과 학교는 잡초로 가관이 아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터전이라고 생각하니 감사기도가 나온다. 돈한 푼 없이 폐교를 달라며 밤마다 폐교담장을 넘어야 했고, 게다가 여름밤 모기에 뜰려가면서 동리사람들이 알까봐 불도 피우지 못하고 부부가 매달려 기도해 힘겨운 결과 충북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소재 폐교를 충주시로부터 매입할 조건으로 낙찰되어 교회시설을 갖추고 2003년 10월 27일 설립예배를 드렸다.

하지만 무일푼으로 폐교를 경매에 참여한 경쟁자를 물리치고 낙찰은 받았지만 결국 매입은 하지 못하고 1년에 2,0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재계약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업무가 나질 않은 폐교를 수리를 하고 예배드릴 교회를 만들고, 사택은 컨테이너박스 두개를 구입하여 시설하고, 폐교를 수리해서 충남, 북 여러 지역으로부터 여름철 수련회장으로 또는 화사나 교회의 재직회 등 MT장으로 활용하게 하고 그 수입으로 2,000만원의 임대료를 감당해보려고 시도를 했지만, 월 전기료가 100만 원 이상 나오고 게다가

옷 된장과 120가지 풀로 만든 효소원액을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시설물 관리비 등이 장난이 아니었다.

결국 몇 년 못 견디고 손을 들었다. 또 한 너무 오래된 학교의 건물과 시설이 낡아 비가 명서교회003.jpg내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찾아가지 이젠 찾는 이가 없다. 그렇게 지내온 것이 벌써 약 1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김 목사는 부부는 목회에 전념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 기도 중에 있다.

김시립 목사, 남경우 사모(부부)는 매월 교회의 임대료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골 동리마을에서 경작한 콩을 구입하여 된장을 담그는 일을 시작했고, 한마디로 발효식품 웰빙된장이다. 순수한 시골에서 난 콩과 옷 나무를 넣어 오래 동안 숙성시킨 발효식품이다. 이 사실을 아는 이들은 구전을 통하여 찾아온 목회자, 평신도들에게 된장 값을 받지

않는다고 하자 이구동성으로 기도해 주면서 예배를 드린 후 선교비와 감사헌금으로 대신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교비와 감사헌금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남경우 사모가 한때 어느 지인을 부동산을 하면서 약 3,4천만 원의 도움을 준 일이 있는데, 너무도 어려워져서 그 지인과 통화를 하고 약속장소를 찾아가지만 무려 6섯 번이나 만날 장소를 변경하더

교비로 지원해주어서 임대료를 일부 해결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10여년을 지내오면서 농촌교회를 지키며 20여 명의 노인들을 성도로 섬기고 있는 김 목사는 늙으신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목사 부부의 눈물의 기도는 주야의 음식이 되었다. 남경우 사모는 한 영혼을 위하여 1년 반 동안 날마다 술에 중독된 여인을 위해 혼신을

나 마지막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오늘은 안 되었으니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말에 하늘이 무너진다. 하루 종일 이리오라 저리오라는 그를 만나기 위해서 장소를 6섯 번이나 찾아다니다 보니 몸은 지치다 못해 탈진되었다.

강남 대로변에서 몸을 가눌 수 없이 허엿없이 쏟아지는 눈물을 닦으며 횡단대로를 호느적거리며 건넜다. 그리고 전화벨이 울린다. 어떤 지인으로부터 돈이 준비되었으니 오라고 했다. 그런데 그 지인도 너무도 어려웠던 사람이었는데,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 지인이 속한 단체(청담동 모 디자이나 선교단체)이다. 이 디자인단체는 1년 한 번씩 바자회를 열어 세계선교와 국내선교를 해온 믿음이 좋은 선교단체이다. 결국 그 단체에서 1,000만원을 선

다해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간증을 한다. 한 잔의 술에 자신의 몸을 댓가로 지불하는 불쌍한 여인을 찾아가 주일이면 데려오는데 갈 때 마다 아침까지 술에 취해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데려와 씻기고 예배를 같이 드리면 잔다는 것이다. 그러기를 1년 반이다. 어느 때나 다름없이 주일 아침에 데려와 왔는데, 역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다. 그래도 그녀를 사모는 등에 업고 저 언덕 아래 차 있는 곳까지 힘들게 가야한다.

하루는 사모의 마음에 불평이 나온다. 저 영혼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러한 여인을 내게 맡기셨습니까? 하고 자문자답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네가 나를 불렀을 그때 너도 저 모습이었단다. 그날 이후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를 더



김시립 목사, 남경우 사모(부부)

사람하게 되었고, 눈이 펴평 내릴 때도 400m를 업어서 교회로 인도한 결과 그 여인이 변화가 되었다는 간증이다.

하지만 명서교회는 건널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충주시시가 폐교를 사용하겠다고 7월 31일까지 비워달라는 것을 비워주지 못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 한다. 당장 방 한 칸도 얻을 돈도 없는데, 노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이 들어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저 영혼들은 끝까지 지켜야하겠기에 김시립 목사 내외는 기도하고 있다. 다행히 동리 어느 지인이 땅 200평을 3년간 쓰도록 해주었다. 그렇지만 당장 컨테이너박스를 옮기는 비용만 해도 150만원이 든다. 게다가 철거하는 비용, 다시 조립하는 비용 등 1,000만원이 있어야 한다. 시골교회를 선교해 주겠다는 마음으로 된장을 가져가되 농촌교회를 살리는데 선교비로 지원이 필요하다.

순수하게 동리마을에서 구입한 콩으로 만든 된장에 특별히 몸에 좋다는 옷 나무를 넣어서 발효시킨 건강식품이다. 이 옷 된장을 팔수는 없다. 식품허가를 내야 하는데, 교회가 목적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옷 된장을 담아서 2년, 걸려서 3년을 숙성시키는 과정이 5년이 걸려야 최고의 옷 된장식품이 된다고 한다. 그러한 옷 된장이 무려 40 도가니에 이른다. 이 옷 된장에 대해서 간증을 하

려면 지면이 부족하다. 생략하고...

또한 120가지 종류의 풀로 발효시켜 만든 효소원액, 건강식품이 정성을 다해 담아놓은 것들로 건강식품이다. 이것도 식품허가가 없기 때문에 팔을 수는 없고 필요한 분들은 농촌교회를 살리는데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60대 중반인 목사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농촌교회를 돕는 손길을 원하고 있다.

이 건강효소식품은 천동 산에서 자란 약초와 도라지, 더덕 등 120가지 풀로 만든 효소라고 한다. 또한 120가지의 풀과 뿌리로 만든 효소원액 식초가 있는데 건강식품으로 좋다고 한다.

현재 120가지 뿌리와 풀로 만들어진 효소원액(위 사진)의 종류는 머리에 좋은 효소, 암에 좋은 효소, 부분별로 해놓은 게 10여 가지가 넘고 1년산에서 3년산 등이 있다. 충주에서 목회하는 모 목사는 손이 몹시 떨리는 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효소원액을 복용한 후 지금은 손 떨림이 멈추었다고 한다. 또한 남경우 사모는 소변을 보지 못하는 방광염 등,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겪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란 평을 들을 만큼 많이 아팠지만, 120가지 효소를 만들어 먹고 지금은 병원을 모른다고 한다. 이처럼 효소원액의 장점은 건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당장 갈 곳이 없는 시골 명서교회를 도울 수 있는 손길이 필요하다. 연락처와 주소는 충북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명서 영성 수련원 원장 : 김시립 목사 전화: 043-851-9937-8 직통: 010-6263-8959



당장 도움이 필요한 충주 시골 명서교회

충북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명서교회 영성수련원 김시립 담임목사 남경우 사모 명서리에 있는 폐교를 충주시로부터 임대하여 약 10년을 사용하던 중 충주시가 폐교를 사용하겠다고 교회를 철수 해달라고 당장 손에 가진 것은 없고 20여 명의 교령의 노인들을 모시고 갈 곳은 없습니다.

안타까운 소문을 듣고 200평의 땅을 5년간 무상으로 임대해 허락해 주었지만 이사비용도 그곳에 컨테이너박스 두 동을 옮겨 시설을 해야 하는데 약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옷 된장 40-50도가니를 건축헌금으로 내놓았습니다. 이 옷 된장은 옷 나무를 3년 동안 발효시킨 것이며 된장은 2년 동안 숙성시켜서 옷 나무 원액과 된장이 만들어지는데 5년이 걸린다는 옷 된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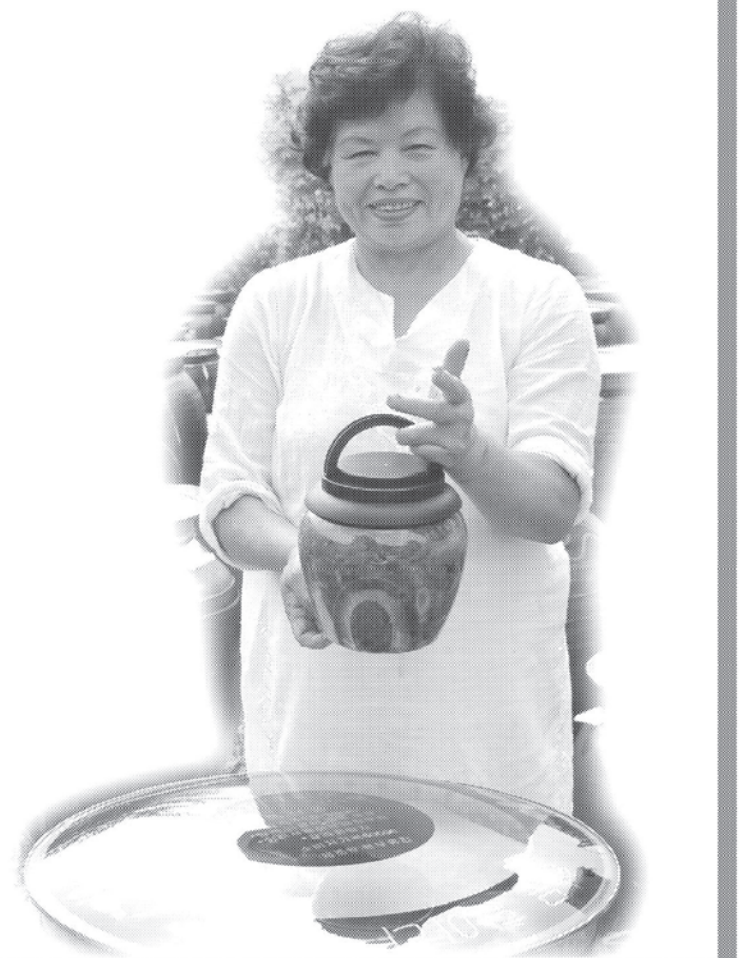
또한 인근 천동산에서 채취한 120가지 풀로 담고 발효시킨 효소원액이 수십 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즉 웰빙옷된장, 120가지 풀로 만든 효소원액인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법적인 저축을 받기 때문에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오직 농촌교회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선교비를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옷된장과 효소원액은 선교회 주신분한테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시립 목사, 남경우 사모, 부부가 농촌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뛰었습니다.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주 소 : 충북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영성수련원 원장 : 김시립 목사

연락처 : 043-851-9937-8 직통 : 010-6263-8959



美교포 3세 봉사자들, 미자립교회서 칭찬받은 이유는?

2013 CTS 영어캠프, 청소년 문화체험 및 주일학교 전도 기회 활용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는 7월 23일부터 8월 10일까지 미 한인교회 청년 100명을 초청, 전국 12개 교회에서 약 9백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3 CTS 영어캠프」를 실시했다.

재미교포 3세 청년들은 지방도시 및 농어촌 미자립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영어와 성경을 가르치는 단기선교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와 성도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서울,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비해 문화혜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지에서는 지역교회에서 개최하는 '영어캠프'를 우수한 문화행사로 인식, 신앙과 관계없이 자녀들을 교회로 보내며 관심을 가졌다.

올해로 9회째였던 지난 캠프는 초등학교부터 중학생까지의 학생들에게 원어민 영어수업은 물론 성경공부와 예배를 진행하며, '주일학교 전도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교회 관계자들의 평가다.



▲ 8월 9일 해단식 모습. 미교포 3세들에게 이번 '2013 CTS영어캠프'는 3개월을 합숙하며 준비한 단기선교 봉사활동이었다.

강원도 화천군 27사단(이기자부대) 군인교회 김종구 목사는 "행사 개최가 알려지면서 차로 40분 거리인 인근 사단에서도 여러 군인 가족 아이들이 참석했으며, 교회를 다니지 않는 화천군 일반 가정에서도 많은 자녀들을 보내주었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일정을 함께한 황은신 교육목사는 "교포 청년들이 바닥에 침낭을 깔고 잠자며, 저녁에는 사별식사를 하면서도 어떤 불평도 없이 선교하는 마음으로 임했다"며 "주변의 평가가 좋은만큼 내년에도 이 행사가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동에서 개최한 새하늘교회도 이번 행사는 주일학교 전도의 좋은 기회였다. 담당자인 김지숙 집사는 "교회 출석 아이들이 많지 않아 지역의 일반 학생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38명이나 교회를 찾아왔다"며 "다함께 열심히 섬긴 덕분에 지역 내에서 교회의 평판이 좋아졌다"고 자랑했다.

충북 음성군의 무극중앙성결교회는 평소 80명의 아이들이 출석하는데 이번엔 새롭게 교회에 찾아온 학생수가 6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현재 심방 등으로 아이들의 계속된 교회출석을 위해 노력

중이다.

무려 3개월을 합숙하며 이번 캠프를 준비했던 교포 청년들도 모든 일정을 마치면서 깊은 감명과 특별한 소회를 밝혔다. 얼마인침례교회 앤디 군(19세)은 "영어를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느라 사람이 먼지라는 것을 잠시 잊었지만, 하나님께서 일정을 주셨다"고 말했다. 또한 "새벽기도를 마친 이기자교회 어머니들께서 아침밥을 해주시는 등 오히려 더 잘 섬겨주셨다"고 고마워했다. LA총현교회 그레이스 양(20세)도 "마지막 날 아이들과 눈물로 헤어졌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셨다"고 고백했다.

CTS 감경철 회장은 "교포 청년들의 한국 봉사활동은 기독교의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좋은 사례이며, 참예된 주일학교 전도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총 임원일행, 하계수련회 및 거제 경찰서 위문



한국경목총회(이하-한경총 총회장 이상재 목사) 임원 일행은 지난 8월1일-3일까지 하계수련회를 갖고, 거제 경찰서(김성우 서장)를 위문했다.

청각인 지방회장 임해숙 목사 초청으로 거제시 동부면 오송리 759번지 문화관광농원에서 하계수련회가 진행되어 한경총 총회장 이상재 목사와 임원 일행은 쌓였던 피로감을 해소하고, 영적충전으로 새롭게

힘을 얻었다.

또한 이상재 총회장과 일행은 8월 2일 오후 2시 경남 거제시 거제 경찰서를 위문하고, 총경 김성우 서장의 환영을 받았으며, 이날 한경총 총회장 이상재 목사는 평생 경목사업에 적극 협조한 총경 김성우 서장을 높이 치하하고 공로패를 전달했다. 아울러 이상재 총회장은 거제경찰서 내에 예배처소 인교회와 경목실을 만들어 줄 것

을 당부했다.

이어 거제 경찰서 김성우 서장은 한경총에서 추천한 모범경목 다섯 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포상을 내리는 등 화기애애한 자리가 되었다.

한편 청각인 지방회장 임해숙 목사 초청으로 동석한 한경총 총회장 이상재 목사 일행은 유종의 미를 거둔 가운데 행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벌이던 중 선배와 경합하는 모습이 총회 발전에 유익하지 못하다는 성명을 남기고 전직 사퇴를 했다. 그러나 사모님의 별세와 겹쳐 김목사는 극도의 Burn Out에 빠져 힘든 세월을 보냈고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어 총회를 위해 헌신해 보겠다는 의지로 다시 출마를 하게 된 것이다.

김철봉 목사에게는 최연소 별명이 있다. 19세 최연소 교육전도사, 27세 최연소 목사안수, 33세 최연소 위임목사 등이다. 마산제일교회, 서울시민교회를 거쳐 지금은 사직동교회에서 사무하고 있다. 신상현 목사는 총회에서 다양하게 봉사를 했다. 울산기독교총연합회 회장과 직전에는 고려학원이사회 이사장을 역임하였고 울산 미포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부총회장 후보
김철봉 목사
(사직동교회)

부총회장 후보
신상현 목사
(미포교회)

장로부총회장 단독후보
임승우 장로
(창원한빛교회)

두 사람 다 총회를 위한 열정과 헌신이 남달라 부총회장으로 손색이 없는 터라 올 가을 총회에서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장로부총회장 후보에는 창원한빛교회 임승우 장로가 단독 출마를 했다. 올해 69세로 전국장로회연합회 회장을 역임했다. 서기에는 배광호 목사(35회)가 단독 출마했다. 63회 총회는 천안고려신학대학원에서 9월 24일(화) 개최된다.

파종전 목사 8월 국내·외 성회 일정

2(금) 저녁	서울 새교회(마태복 목사) 전교인수련회 장소: 원주 새수원원 ☎(033)732-0587
3(토) 오후	대전 열린교회(미국 Henderson C. University 한국 branch) 대전 열린교회(미국 Henderson C. University 한국 branch) 수련회 ☎(041)664-9481
5(월) 저녁	일본(Japan) New Life 페스티벌(대교회 목사) 장소: 동경 New Life Center ☎030-3162-6913
6(화)~8(목)	세종 평화의동산(원장 피종진 목사) ☎(041)852-2211
8(목) 저녁	광주 하천교회(이택 목사) ☎(062)962-0865
11(주) 오후	오산리치자실기(원장 피종진 목사) ☎(031)947-0091
12(월) 오후	서울 큰기름비전교회(최완수 목사) ☎010-5454-8842
15(목) 오전	8.15 한민족세계기도대성회, 장소: 한국기독교회관 주최: 세계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한정식 목사) 오산리치자실기(원장 피종진 목사) ☎(031)947-0091
19(월) 오전	주최: 연세대학교 총동문 목회자부흥협의회(총재 강영선 목사) 제179차 해외성회(179th Overseas Assembly) 일본(Japan) 오사카 세이렌교회(김수복 목사) ☎(090)7105-1000
19(월)~21(수)	일본(Japan) 나라타 캄페리온교회(김태실 목사) ☎070-9825-9118
25(주) 저녁	시흥 영광교회(최완수 목사) ☎011-9771-0918
26(월)~28(수)	영광 사랑의교회(최완수 목사) ☎070-4115-8291
29(목) 오후	한영신학대학교(총장 한영호 목사) ☎(02)2067-4500
30(금) 오전	남양주 수동기독교회(이택 목사) ☎(031)594-6161 주최: 대한예수교장로회(개척) 부흥사회(대표회장 정민철 목사)

고신 목사부총회장 후보 김철봉, 신상현 목사 등록

오는 9월 제63회 총회 목사부총회장 후보로 김철봉 목사(중부산, 사직동교회)와 신상현 목사(울산, 미포교회)가 총회선관위에 등록하여 2차전으로 치르게 되었다. 김철봉 목사는 1950년 생으로 63세이며 고려신학대학원 제30회를 졸업했고 신상현 목사는 1948년생으로 33회 졸업생이다.

부총회장 주준태 목사가 31회이니 30회는 지났고 32회는 후보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33회인 신상현 목사가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것인데 30회인 김철봉 목사가 다시 출마를 하여 경합을 벌이게 된 것이다.

사실 김철봉 목사는 4년 전 부총회장으로 출마를 했던 경험이라, 당시 28회 윤현주 목사와 함께 부총회장 출마하여 경합을

제8차 정기총회 및 제4기 부흥사 연수

부흥사로서 사명을 감당하실 동역자를 모십니다



대표회장 박영민 목사

총재 이재갑 목사

고운 광동식 목사

고운 강문종 목사

고운 이철호 목사

부총재 이재원 목사

부총재 정기남 목사

부총재 하종우 목사

부총재 성창경 목사



연수원장 정기환 목사



자문 박길영 목사



수석성회장 데이비드김



감사단장 박수영 목사



수석실무회장 전진성 목사



예능국장 선명숙 목사



사무처장 주은총 목사



사무처장 오세승 목사



사무처장 오세승 목사

- 연수 장소: 예성 영성원(부총재 성창경 목사 사무)
경기도 화성시 우정면 이화리 443-1(현대병원 옆)
010-2743-5302
- 일시: 2013. 8. 19(월)~14(수). 월요일 오전 11:30까지 도착요망
- 준비물: 성경찬송, 필기구, 세면도구, 간단한 침구
- 회비: 수련회 - 5만원, 연수비(대상자만): 5만원 추가(숙식, 교재비 포함)

문의: 사무처장 주은총 목사(010-6327-0191)
사무처장 오세승 목사(010-7619-3927)

부흥사로서 사명을 감당하실 동역자님들을 모십니다.

후원: 지저스타임즈

회 김부경 목사, 윤순란 목사, 정 선 목사, 이기학 목사, 김봉남 목사, 오세승 목사, 김명목 목사, 이명군 목사, 정성준 목사, 주찬양 목사, 여현관 목사, 이재숙 목사, 원 임요한 목사, 박광환 목사, 박종만 목사, 김순애 목사, 전미리 목사, 안정일 전도사, 오선연 전도사, 부요한 전도사, 김창영 선교사, 박달수 선교사, 주영광 선교사

공지
· 회원중 부득이한 사항이 아닌 분이 6개월 이상 회비 미납과 장기 불출석하신분은 자동 탈퇴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 본 광고 회원 명단에 없는 분이 본 단체 예산 집행에 사용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신 분은 총회 시 연권 및 투표권이 없음을 알립니다.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

주소: 인천시 남구 춘의1동 441-45 등불교회
전화: 032-891-0651 대표회장 박영민 목사: 010-2080-0651